

기
출
분
석
문
제
집

1등급 만들기

현대사회와
윤리
745제

바른답·
알찬풀이

I 현대 생활과 윤리

Q1 윤리학과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

기본 기출 문제 ● 7쪽 ~ 8쪽

핵심 개념 문제

- 001 윤리 002 윤리학 003 수양 004 × 005 ○
 006 × 007 ㉠ 008 ㉡ 009 ㉢ 010 ㉣ 011 ㉤
- 012 ㉥ 013 ㉦ 014 ㉧ 015 ㉨ 016 ㉩ 017 ㉪
 018 ㉫ 019 ㉬

012

㉡은 윤리이다.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토대(㉣)이자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사람의 행위를 더욱 사람답게 해주는 원리이다.

바로잡기 ㉠. 윤리는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 윤리는 인간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이다.

013

제시문은 윤리학이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해당 윤리학은 메타 윤리학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 추론 과정의 논리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바로잡기 ① 이론 윤리학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기술 윤리학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실천 윤리학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14

제시문은 윤리학의 과제를 가치 중립적 서술, 도덕 판단의 인과 관계 탐구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윤리학은 기술 윤리학임을 알 수 있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과 문제를 명확하게, 그리고 가치 평가 없이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즉, 기술 윤리학은 당위로서의 도덕 보다는 사실로서의 도덕을 탐구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015

제시문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듯 인간의 본성도 선한 것이 당연하다고 보므로 맹자의 성선설 입장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사단'이라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타고난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 교육과 제도를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성악설이다. ㉣.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성무선악설이다.

016

㉡은 인간다움이다. 인간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 윤리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제시문의 내용과 무관하다.

017

제시문은 규범 윤리학의 의미와 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규범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되므로 ㉡은 실천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론 윤리학의 연구 성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현실을 윤리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바로잡기 ㉠. 실천 윤리학은 동시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탐구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

018

제시문은 윤리학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므로 실천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에서 제공하는 도덕 이론을 근거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바로잡기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③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④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019

제시된 윤리 문제들은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윤리 문제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 전통적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바로잡기 ㉠.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등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는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020 ④ 021 ⑤ 022 ① 023 ④ 024 ③ 025 ④

1등급을 향한 새답형 문제

026 [예시 답안] 전통적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다.

027 [예시 답안] 실천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에 있다.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028** ㉠ 성선설, ㉡ 성악설, ㉢ 성무선악설

029 [예시 답안] 인간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 윤리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020

㉠은 윤리이다. 윤리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도리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

바로잡기 ㉡. 자연법칙을 가리킨다.

021

제시문의 갑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불선으로 나눌 수 없다고 보므로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 을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지 않음이 없다고 보므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네 가지 선한 마음, 즉 사단(四端)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인간의 감각적 욕구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양 방법으로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는 구방심(求放心)과 욕심을 적게 가지는 과욕(寡慾)을 강조하였다(㉡). 고자와 맹자는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은 서로 달랐지만, 후천적 노력을 통해 윤리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점은 공통적이다(㉢).

바로잡기 ㉡.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이나 악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였다.

022

제시문의 갑은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지닌다고 보므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 을은 이익을 좋아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므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났으며, 수양을 통해 이러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며, 인간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순자의 입장에서는 맹자에게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맹자에 따르면 예의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덕이다. 따라서 맹자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맹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타고났음에도 악을 행하는 이유가 외부 환경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순자가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맹자는 수양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맹자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등급 정리 노트 맹자의 사단과 사덕

사단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으로, 사덕[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인(仁)의 단
수오지심(羞惡之心)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 의(義)의 단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 예(禮)의 단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 지(智)의 단

023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윤리 이론과 도덕 원리를 적용하며(㉠),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학제적 공동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문제 해결을 통해 현실의 윤리적 변화를 추구한다(㉢).

바로잡기 ㉡. 실천 윤리학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탐구 과제로 삼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24

제시된 탐구 방법은 정합주의 모델이다. 정합주의 모델은 기존의 도덕 원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도덕 원리와 사례의 평형 상태를 추구한다(㉡).

바로잡기 ㉡. 정합주의 모델은 도덕 원리와 사례 분석이 상호 보완적임을 전제하며, 이미 수정된 도덕 원리로 반성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025

제시문의 ‘나’는 윤리학이 구체적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므로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도덕적 추론의 인식 방법 연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므로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에게 도덕 이론을 바탕으로 도덕 문제에 대한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므로 ‘나’가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므로 ‘나’가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실천 윤리학은 다른 학문과 연계하여 도덕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나’의 입장에서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026

현대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윤리 문제들은 전통적인 윤리 이론이나 도덕 원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파급 효과가 광범위

하며, 문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채점 기준	수준
새로운 윤리 문제의 특징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새로운 윤리 문제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027

현대사회에 요청되는 새로운 윤리학은 실천 지향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이론 윤리학과 유기적 관계에 있으며,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채점 기준	수준
새로운 윤리학의 특징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새로운 윤리학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028

㉠, ㉡, ㉢에 들어갈 말은 각각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이다.

029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모두 인간이 후천적 노력을 통해 윤리적 삶을 지향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채점 기준	수준
공통된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공통된 입장을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1등급 정리 노트 인간 본성에 관한 서양의 관점

흡스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이기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음
로크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 후천적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형성해 나감
루소	인간은 선하고 순수하며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문명의 발달로 인해 타락할 수 있음

적중 1등급 문제 ————— ● 11쪽

030 ② 031 ① 032 ④ 033 ④

030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등급 자료 분석

인간이 인의예지를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같은 맹자이다.
 갑: 군자가 본성(性)으로 삼는 것은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다. 그것은 몸에 색조로 나타나기도 해서 몸이 무어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명예를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하며,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군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性)을 교화하고 인위(僞)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가의 본성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옳은 주장이다.

같은 맹자, 이른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누구나 네 가지 선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하지만 외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을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㉑)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성정(性情)은 악하지만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교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선을 실천하기 위해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㉒).

바로잡기 ㄴ.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ㄹ.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인위의 결과로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 ㉠. B: 인간은 누구나 같은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
 ㉡. B: 인간이 악을 행하는 원인은 타고난 본성에 있다. (×)

031 다양한 윤리학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가) 윤리학은 어떤 사회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관행의 형성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천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가)는 기술 윤리학, (나)는 실천 윤리학이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바로잡기 ②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③, ④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⑤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므로 (나)에만 해당한다.

032 다양한 윤리학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가)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타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나) 물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실천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가)는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 (나)는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은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도덕 명제에 대한 논리적 명료화를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033 다양한 윤리학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 비교

갑: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하며, 도덕 원리나 도덕적 정당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론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을: 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에 대해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실천 윤리학의 주요 과제이다.

같은 이론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 을은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은 모두 규범 윤리학에 해당하며, 규범 윤리학은 당위로서의 도덕을 탐구하며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론 윤리학은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며, 실천 윤리학은 이론 윤리학이 제공하는 도덕 원리를 토대로 윤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바로잡기 ①, ②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갑, 을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③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므로 갑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⑤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므로 을이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선택지 더 보기

- ⑥ B: 윤리학은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해야 하는가? (○)
 ⑦ C: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 학제적 연구를 해야 하는가? (○)

0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기본 기출 문제

● 13쪽 ~ 14쪽

핵심 개념 문제

034 정명 035 연기 036 소국 과민 037 소요 038 ○

039 × 040 ○ 041 ㉠ 042 ㉡ 043 ㉢ 044 ㉣

045 ㉤ 046 ㉥ 047 ㉦ 048 ㉧

049 ④ 050 ② 051 ① 052 ④ 053 ③ 054 ①

049

제시문은 인(仁),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인의 윤리를 중심으로 도덕적 인격 완성을 지향하였는데, 공자가 말하는 인은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과 시비선악(是非善惡)의 분별이 있는 사랑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공자의 입장이다.

050

제시문은 연기 사상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석가모니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때 나와 만물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체득하여 만물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며, 이러한 자비를 실천하면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ㄷ)고 보았다. 그리고 연기의 법칙을 깨달음으로써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탐욕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석가모니는 생로병사(生老病死), 즉 삶, 늙음, 병듦, 죽음은 모두 고통이라고 보았다. ㄷ. 석가모니는 불성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본래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051

제시문은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이라는 자연적 성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아퀴나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자연적 성향을 준수해야 하며(ㄴ),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아퀴나스는 인간이 따라야만 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ㄹ.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052

제시문은 우리의 말, 행동,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고통과 쾌락이며,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양적 공리주의를 제시한 벤담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양적 공리주의는 쾌락에 질적인 차이가 없고 오직 양적인 차이만 있다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쾌락에 감각적 쾌락이나 정신적 쾌락과 같은 질적 차이는 없다.

바로잡기 ④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질적으로 더 높은 쾌락이므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밀의 입장이다.

053

제시문은 덕을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 보므로 덕 윤리를 제시한 매킨타이어의 주장이다. 매킨타이어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보다 공동체의 선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ㄴ), 도덕 판단을 할 때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반영해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매킨타이어는 옳고 선한 행위의 습관화를 통해 덕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ㄹ.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 그 자체보다 행위자가 지닌 품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054

도덕 과학적 접근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윤리 문제를 철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바로잡기 ②, ③ 신경 윤리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④, ⑤ 진화 윤리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055 ⑤ 056 ③ 057 ④ 058 ③ 059 ③ 060 ⑤
061 ① 062 ① 063 ② 064 ① 065 ③ 066 ⑤
067 ⑤ 068 ②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069 [예시 답안]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경우마다 어떤 대안이 더 큰 공리를 가져올지 계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 대안의 유용성을 계산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어긋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070 [예시 답안]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들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갈등하는 규칙 간에 공리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071** ① 신경 윤리학, ④ 진화 윤리학

072 [예시 답안]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도덕성을 형성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055

제시문은 상선약수를 제시하였으므로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작은 크기의 국가에 적은 수의 백성이 사는 소국 과민,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와 무욕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노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056

제시문은 연기 사상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에게 원인과 조건이 되면서 생멸한다(ㄷ)는 연기 사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연기 사상, 즉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석가모니에 따르면 무명은 고통의 원인이므로 무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ㄷ. 석가모니는 연기를 깨달으면 윤회를 끊어 내고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057

갑은 사람의 본성에 인의(仁義)의 마음이 있으며 양심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맹자임을, 을은 본래 그러한 것을 인위적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므로 장자임을 알 수 있다. 장자는 인위적 기준이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강조하였다. 심재는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수양 방법이다.

바로잡기 ①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 즉 무위지치를 주장한 것은 노자이다. 맹자는 군주가 인의(仁義)의 덕으로 다스리는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하였다. ② 맹자에 따르면 군자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바른 마음을 견지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도 유지할 수 없다[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따라서 향산이 있어야 향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이다. ③ 장자는 만물의 근원인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분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맹자만의 입장이다.

058

제시문은 각자가 자신의 이름과 역할에 맞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제시하므로 유교 사상가인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무력에 의존하는 정치를 반대하고 덕치(德治)를 강조하였는데(ㄴ), 덕치란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말한다. 또한 그는 인(仁)의 실천 덕목으로써 서(恕)를 제시하였다(ㄷ).

바로잡기 ㄱ. 도가 사상가인 노자가 추구한 이상 사회이다. 공자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ㄷ. 공자가 강조한 인(仁)은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넓혀 가는 것이다.

059

제시문은 도덕 법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오직 도덕 법칙을 따르겠다는 의무 의식 혹은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덕 윤리학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② 자연법 윤리학자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④ 양적 공리주의자인 벤담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⑤ 질적 공리주의자인 밀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1등급 정리 노트 윤리적 의사 결정 시 고려해야 할 물음

칸트 의무론	• 보편주의 관련 물음: 내가 하려는 행위를 다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 인격주의 관련 물음: 나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리주의적 접근	• 어떤 행위 혹은 규칙이 최대의 공리를 산출하는가? • 대안들 중 비용 대비 최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덕 윤리적 접근	•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행위는 무엇인가? •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어떠한 덕목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가?

060

제시문은 쾌락을 측정할 때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질적 공리주의를 확립한 밀의 주장이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칸트의 입장이다. 밀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였다. ② 밀은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아,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밀은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과 달리 인간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④ 규칙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061

갑은 덕을 인간이 습득한 성질이라고 주장하므로 매킨타이어임을, 을은 의무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매킨타이어는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반면 칸트는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의 입장에서는 칸트에 대해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인 개개인이 도덕 법칙의 수립자라고 보았다. ③ 칸트는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구체적 맥락보다 보편타당한 원리에 따라서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062

제시문의 갑은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을 개별 행위의 결과로, 을은 행위의 규칙으로 본다. 따라서 갑은 행위 공리주의자, 을은 규칙 공리주의자이다. 행위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리를 각각의 행위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ㄱ)고 보며, 규칙 공리주의자는 공리의 원리를 행위의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행위 공리주의자와 규칙 공리주의자는 모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행위의 결과로 본다(ㄴ).

바로잡기 ㄷ. 행위 공리주의자는 유용성이 검증된 규칙에 일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행위도 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칸트의 입장이다.

063

제시문의 갑은 어떤 행위의 가치를 판단할 때 쾌락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므로 양적 공리주의자 벤담, 을은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다.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ㄱ). 또한 벤담은 공리주의자로서 어떤 행위가 고통을 산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면 도덕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자로서 행복 증대와 무관한 순수한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갑, 을 모두 '네'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ㄹ. 밀은 질적 공리주의자로서 쾌락을 계산할 때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064

제시문은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그르다고 보므로 자연법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은 자연법 윤리이다. 자연법 윤리는 윤리적 의사 결정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바로잡기 ㉡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할 질

문이다. ③, ④ 자연법 윤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덕 윤리의 입장에서 윤리적 의사 결정의 기준으로 제시할 질문이다.

065

제시문의 갑은 공동체의 행복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라고 보므로 공리주의의 입장인 벤담, 을은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명령, 즉 정언 명령을 말하므로 의무론의 입장인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판단을 할 때 행복 추구하고 같은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정언 명령에 의해 제시되는, 오직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벤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④ 칸트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⑤ 칸트와 벤담의 차이점으로 적절하다.

066

제시문의 갑은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한 밀, 을은 덕 윤리학자 매킨타이어이다.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유용성을 중시한 반면, 매킨타이어는 유용성보다 행위자의 품성과 공동체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밀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③, ④ 매킨타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1등급 정리 노트 현대 덕 윤리의 등장

등장 배경	•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뿌리를 둔 • 의무론과 공리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함
행위 중심의 윤리 비판	• 의무론, 공리주의를 행위 중심의 윤리라고 비판함 • 행위 중심의 윤리: 도덕 법칙이나 도덕 원리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함 → 윤리적 판단이나 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지닌 도덕적 성품의 중요성을 간과함
행위자 중심의 윤리 제시	• 행위 중심의 윤리를 비판하면서 덕 윤리를 행위자 중심의 윤리라고 주장함 • 행위자의 성품을 먼저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봄 •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의 질문보다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에 집중함

067

제시문은 공리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벤담의 주장이다. 벤담은 쾌락의 추구하고 고통의 감소,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A에게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에 기여하는지 계산할 것을(ㄷ),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을(ㄴ) 조언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칸트의 입장이다. ㄴ. 덕 윤리의 입장이다. 벤담은 공동체의 전통이 아닌 유용성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068

제시문은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본 매킨타이어의 주장이다. 매킨타이어는 현대 덕 윤리학자이자 공동체주의자로서

인간의 도덕적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어야 하며(ㄴ),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ㄱ)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바로잡기 ㄴ.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다. 자유주의는 개인마다 추구하는 선과 그 지향점이 모두 다르므로 개인의 사적 삶에 대한 국가 간섭의 범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ㄱ.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가 개인에게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069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경우마다 어떤 대안이 더 큰 공리를 가져올지 계산하기 어렵다. 그리고 각 대안의 유용성을 계산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어긋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칫 도덕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행위 공리주의의 한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070

규칙 공리주의는 규칙들이 충돌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리고 갈등하는 규칙 간에 공리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규칙 공리주의의 한계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규칙 공리주의의 한계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071

㉠에 들어갈 말은 신경 윤리학, ㉡에 들어갈 말은 진화 윤리학이다.

072

도덕 과학적 접근은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도덕성을 형성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채점 기준	수준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사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사점을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19쪽

073 ① 074 ④ 075 ③ 076 ①

073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공자와 노자의 주장 비교

정명 사상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공자임을 알 수 있다.
 감: 이름을 바로잡는 것[正名]이 정치의 시작이다. 이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예악이 흥성하지 않고, 예악이 흥성하지 않으면 형벌이 제멋대로 된다. 율·도(道)는 자연스러움을 본받는다. 인위적인 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내 버려두면 백성들이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세상도 잘 돌아간다.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노자임을 알 수 있다.

잡은 공자, 읊은 노자이다. 노자는 공자에 비해 시비선악의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인위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정도(Y)와 이상적인 정치 실현을 위해 백성들의 무지무욕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074 불교 사상의 특징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석가모니의 주장 이해

어떤 것이 번뇌가 다한[盡] 지혜의 밝음인가? 이것은 괴로움일 뿐이라고 사실 그대로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며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임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다.
 사성제 중 고제
 사성제 중 접제
 사성제 중 멸제
 사성제 중 도제

제시문은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수행을 통해 참된 진리인 연기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두 번째 입장)고 보았다. 그리고 이를 깨달을 때 자비의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세 번째 입장)고 보았다. 또한 모든 생물은 불성을 지니므로 모두 평등하다고 보아 생명에 대한 차별 의식에서 벗어날 것(첫 번째 입장)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네 번째 입장. 석가모니는 탐욕으로 생긴 번뇌는 깨달음을 통해 소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다섯 번째 입장. 현세의 도덕적 삶이 내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여섯 번째 입장. 팔정도(八正道)의 수행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일곱 번째 입장. 모든 존재가 불변적 실체임을 깨달아야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

075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유교와 불교의 특징 비교

불인인자심, 인의를 제시하므로 유교 사상이다.
 (가) 사람은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를 친애하는 것이 인(仁)이고, 뒷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의(義)이다.
 (나)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짐, 오온(五蘊)의 부서짐, 생명의 끊어짐을 죽음이라 한다. 삶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와 같으니 그대, 마땅히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오온을 제시하므로 불교 사상이다.

(가)는 유교 사상, (나)는 불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나면 열반 혹은 해탈이라는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로잡기 ①, ⑤ 도가 사상이 강조하는 내용이다. ② 유교 사상은 통치 방법과 관련하여 형벌이나 무력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써 백성들을 교화하는 덕치(德治)를 강조한다. ④ 불교 사상은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

076 다양한 서양 윤리 사상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매킨타이어, 칸트, 벤담의 주장 비교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가 반영된 도덕 판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매킨타이어임을 알 수 있다.
 갑: 선의 추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전통에 의해 규정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관행에 내재된 선뿐만 아니라 개인적 삶의 선에도 타당하다.
 을: 도덕 법칙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이 될 수 있다.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는 법칙에 대한 순수한 존경뿐이다.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병: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쾌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하여 차감했을 때 쾌락 쪽이 남는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쾌락과 고통의 양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벤담임을 알 수 있다.

갑은 매킨타이어, 을은 칸트, 병은 벤담이다. 현대 덕 윤리는 의무론, 공리주의 등과 같은 기존의 윤리가 행위 중심의 윤리임을 비판하고 행위자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며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대 덕 윤리학자로서 매킨타이어는 칸트와 벤담에게 도덕 원리의 정립보다 행위자의 품성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ㄱ)고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칸트는 매킨타이어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ㄴ)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ㄷ.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로서 개인의 선호보다 공동체의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킨타이어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ㄹ. 벤담은 공리의 원리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벤담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단원 마무리 문제

● 20쪽 ~ 23쪽

01 윤리학과 현대사회의 윤리 문제

077 ④ 078 ② 079 ① 080 ④ 081 ③ 082 ⑤

083 연역주의 모델 084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02 현대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085 ② 086 ⑤ 087 ③ 088 ⑤ 089 ② 090 ①

091 ③ 092 ① 093 정언 명령 094 **예시 답안** 첫째, 내가 하려는 행위를 다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둘째, 나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077

㉗은 윤리학이다. 윤리학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며(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발하고 고양하게 한다(ㄷ).

바로잡기 ㄱ. 윤리학은 사실을 탐구하는 사실의 학문이 아니라, 당위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ㄷ. 윤리학은 도덕적 규범의 실천을 목표로 삼는다.

078

제시문은 사람이 선천적으로 사단을 갖고 있다고 보므로 맹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행의 기반이 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ㄷ), 이를 유지하고 확충해야 한다(ㄱ)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인간의 감각적 욕구와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입장이다.

079

제시문의 갑은 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므로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임을, 을은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이 아니라 생리적 욕망이라고 주장하므로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고자임을 알 수 있다. 순자와 고자는 공통적으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② 불교의 입장이다. ③ 맹자의 입장이다. ④, ⑤ 도가의 입장이다.

080

제시문의 ‘나’는 윤리학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므로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추론 규칙의 검토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므로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는 메타 윤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에게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

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②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③, ⑤ 메타 윤리학이 강조하는 내용이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081

(가)는 도덕 현상의 가치 중립적 기술을 중시하는 점을 보아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 (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마련을 중시하는 점을 보아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이론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본다.

바로잡기 ①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②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④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⑤ 기술 윤리학만의 핵심 과제로, 이론 윤리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082

제시문은 실천 윤리학이 현대사회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윤리 이론뿐만 아니라 법, 과학, 종교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실천 윤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윤리 문제에 학제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실천 윤리학의 예방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는 다르다. ② 이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실천 윤리학의 실천 지향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에서 제시한 실천 윤리학의 성격과는 다르다. ④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083

제시된 자료는 연역주의 방법을 통해 윤리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084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085

갑은 색수상행식, 즉 오온(五蘊)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석가모니, 을은 이상적 인간상으로 진인(眞人)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장자임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를 수행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또한 석가모니는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불성(佛性)을 가지므로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고 보았고, 장자는 세속의 차별 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석가모니와 장자 모두 차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장자는 인위를 덜어 내는 수양인 좌망(坐忘)과 심재(心齋)를 통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086

제시문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맹자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강력한 형벌로 다스리기보다 덕으로 교화해야 한다(ㄴ)고 보았으며, 부덕하고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역성혁명을 통해 교체되어야 한다(ㄷ)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측은지심을 비롯한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ㄴ. 맹자에 따르면 향산이 있어야 향심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일반 백성이다. 군자는 향산이 없어도 향심을 지닐 수 있다.

087

갑은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이다. 반면 을은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선호하는 쾌락이 더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므로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밀이다.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선 사회의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으며(ㄴ), 이타적인 행동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면 그 이유는 쾌락을 주기 때문(ㄷ)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ㄴ. 벤담과 밀의 공통 입장이므로 B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88

제시문은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말하므로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는 자연적 성향에 따르는 행위는 옳고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A에게 목숨을 끊는 행위가 자기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따른 행위인지 고려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덕 윤리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②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④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089

제시문은 어떤 행위가 오로지 의무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윤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므로 칸트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 즉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ㄴ)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행위는 도덕적이지 않지만, 그 행위가 타인을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는 행위라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칸트는 준칙이 보편적 도덕 법칙과 일치한다면 준칙에 따른 행위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의무를 동기로 삼지 않는 행위도 도덕 법칙에 일치하는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090

(가)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적 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므로 행위 공리주의임을, (나)는 유용성의 평가 대상은 행위가 따르는 규칙이라고 보므로 규칙 공리주의임을 알 수 있다. 행위 공리주의는 도

덕적 직관에 맞지 않더라도 선택의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② (가)에 적절한 내용이다.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가 아닌 규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③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의 원리가 적용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④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적 판단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⑤ 공리주의가 아닌 칸트의 입장에 가까운 내용이다.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는 모두 행위의 결과를 옳은 행위의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091

진화 윤리학은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①, ② 신경 윤리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진화 윤리학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도덕 과학적 접근의 시점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092

제시문은 덕이 중간적인 것을 겨냥한 일종의 중용이라고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은 습관화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없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과 행위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모든 감정과 행위에서 중용을 찾으라고 말할 수 없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두 악덕 사이의 적절한 중간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이 산술적 중간 상태와 다르며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며, 이는 곧 악덕이다.

093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094

첫째, 내가 하려는 행위를 다른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위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원할 수 있는가? 둘째, 나의 행위가 자신과 타인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채점 기준	수준
윤리적 의사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윤리적 의사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II 생명윤리와 생태윤리

03 출생 및 죽음과 생명윤리

기본 기출 문제

● 25쪽 ~ 26쪽

핵심 개념 문제

- 095 불가피성 096 비가역성 097 에피쿠로스
098 ○ 0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⑤ 109 ② 110 ③ 111 ④ 112 ② 113 ①
114 ③

108

유교에서는 상례와 제례를 통해 애도해야 하는 것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의 한 과정으로 보는 점을 통해 ㉠이 ‘죽음’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죽음에 관해 성찰함으로써 삶이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람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죽음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된다. ②, ③, ④ 출생에 관한 설명이다.

109

가상 인터뷰의 사상가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으로 보므로 장자임을 알 수 있다. 장자는 죽음이 자연의 섭리이므로 슬퍼하지 말고 초연할 것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① 죽음에 관한 플라톤의 입장이다. ③ 장자는 죽음을 자연적인 순환 과정으로 보았다. ④ 불교에서는 죽음이 고통이며, 윤회의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을 강조한다. ⑤ 죽음에 관한 에피쿠로스의 입장이다.

110

제시문은 안락사의 허용에 찬성하는 주장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연법 사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이다.

111

제시문은 자연법을 주장하며, 자연법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아

퀴나스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인 자기 보존의 욕구는 자연법에 속하는 자명한 원칙이며, 자살은 이것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아퀴나스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② 아퀴나스는 자연법에 근거할 때 자살은 무조건적으로 악한 행위라고 보았다. ③ 자살에 관한 불교의 입장이다. ⑤ 아퀴나스는 자살이 신의 의지가 우리에게 부여한 자연적 욕구인 자기 보존의 욕구를 이행하지 않는 악한 행위라고 보았다.

112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육체로부터 영혼의 분리와 해방으로 보았다. 플라톤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철학자는 이데아 그 자체를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자이므로 죽음을 가장 덜 무서워한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육체로부터 영혼이 벗어나 참된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해체된 것은 감각이 없으므로 죽음 역시 인간에게 감각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플라톤은 죽음을 인간의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상실되므로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플라톤과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참된 인식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113

제시문은 인공 임신 중절이 태아가 지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인공 임신 중절 반대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찬성하는 입장, 즉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논거를 찾아야 한다.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태아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다는 점(첫 번째 논거),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는데,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므로 그를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두 번째 논거)는 논거를 제시한다.

바로잡기 세 번째 논거, 네 번째 논거.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의 논거이다.

114

제시된 칼럼은 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과 함께 강화 목적의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잡기 ① 제시문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다루므로 해당 기술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② 제시문은 유전 질환 치료, 미래 세대의 선택 기회 확대 등을 예로 들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④, ⑤ 제시문은 미래 세대가 유전자 편집 기술로 강화된 유전 형질을 가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실력 기출 문제

● 27쪽 ~ 30쪽

- 115 ③ 116 ④ 117 ⑤ 118 ④ 119 ③ 120 ②
121 ⑤ 122 ① 123 ③ 124 ② 125 ② 126 ④
127 ⑤ 128 ③ 129 ⑤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130 안락사 **131** **예시 답안**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서 죽음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연명 치료는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연명 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132** **예시 답안**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의료인의 기본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33** **예시 답안** 공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므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본다.

134 **예시 답안**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신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아퀴나스는 자살을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았다. 칸트는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회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115

그림의 갑은 전생의 업을 현생에 받고, 현생의 업을 내세에 받는다고 본 점에서 석가모니, 을은 삶과 죽음이 서로에게서 비롯된다고 본 점에서 장자임을 알 수 있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으로 보고,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도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석가모니는 해탈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석가모니는 죽음을 윤회의 과정으로 보았다. ④ 죽음에 관한 유교의 입장이다. ⑤ 죽음에 관한 불교만의 입장이다.

1등급 정리 노트 죽음에 대한 장자의 자세

삶과 죽음	• 자연적인 순환의 과정 •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
태도	• 삶과 죽음에는 차별이 없음 →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초연하게 대처해야 함 • 죽음에 초연할 때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음

116

제시문은 죽은 후에야 인간이 얻고자 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플라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은 죽음을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것

(ㄴ)으로 보았으며, 죽음을 통해 영원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죽음에 관한 불교의 입장이자. ㄴ. 플라톤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등급 정리 노트 플라톤의 죽음관

죽음관	- 영혼: 불멸하는 것으로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음 → 출생하면서 육체에 갇힘 - 죽음: 영혼이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육체에서 벗어나 영원불멸하는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숙고	삶 속에서 사후 세계에 관한 이성적 탐구와 함께 죽음에 대한 숙고를 해야 함

117

제시문은 살아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본 점을 통해 에피쿠로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상실되므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죽음에 대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에피쿠로스는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한 지혜를 갖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에피쿠로스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감각기관을 갖는다고 보았다.

118

제시문의 사상가는 죽음이 현존재에게 던져진 끝으로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바른 인식을 지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첫 번째, 두 번째 입장)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자신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네 번째 입장)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하이데거는 불멸에 대한 욕망의 실현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하이데거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등급 정리 노트 하이데거의 죽음관

죽음으로서의 선구(先驅)	-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유한한 삶을 자각할 수 있음 -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자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삶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존재
죽음과 삶에 대한 태도	-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함 -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음

119

제시문의 사상가는 삶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죽음에 대해 알려고 하느냐고 반문하므로 공자이다. 공자는 죽음에 대해 상례, 제

례 등 예법에 맞게 애도해야 한다(ㄷ)고 보았다. 또한, 선비와 인(仁)을 갖춘 사람은 삶에 집착하다가 인을 해치는 경우는 없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고 보아 인(仁)의 실현을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공자는 사후 세계나 내세보다 현세의 도덕적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불교의 입장이다.

120

제시문의 값은 인격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해야 하며, 결코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안락사를 고민하고 있는 'A'에게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해 줄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③, ④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⑤ 환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강조하는 조언이므로 칸트가 제시할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121

죽음의 기준으로 값은 뇌사를, 을은 심폐사만을 인정한다.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면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 ㉡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의 근거이다. ㉢, ㉣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의 근거이다.

122

제시문의 값은 뇌사자 장기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의 직접적 동의가 없어도, 뇌사자가 거부한 적이 없으면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장기 이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은 뇌사자 장기 이식의 활성화에는 동의하지만, 뇌사자 본인의 직접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장기 이식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②, ③, ④ 갑과 을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다. ⑤ 갑, 을의 대화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123

제시문은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하고, 연명 치료의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의 글이다. 따라서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ㄴ)고 보며, 이러한 소극적 안락사는 인간존엄성을 지키는 방법(ㄷ)이라고 볼 것이다.

바로잡기 ㄱ. 제시문에 따르면 연명 치료의 중단은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있다. ㄴ. 제시문에 따르면 적극적 안락사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비도덕적 살인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124

값은 인공 임신 중절에 찬성하는 입장, 을은 인공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값은 태아가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 성인과의 유전적 동일성을 가졌지만 합리적 능력은 갖지 못했기에 인간 생

명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을은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모든 인간 생명은 소중하다고 본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④ 갑의 입장에서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므로 간과하고 있지 않다. ⑤ 을은 태아가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을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125

(가)의 사상은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므로 자연법 윤리이며, (나)는 인공 임신 중절권에 관한 사례이다. (나)의 ㉠은 인공 임신 중절권을 옹호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자연법 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인공 임신 중절은 자기 보존 및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바로잡기 ①, ④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인공 임신 중절은 인간의 본성과 자기 보존의 권리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③ (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다.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권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선택권만을 보호하는 행위이다. ⑤ (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다.

126

갑은 동물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을은 동물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동물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복제가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고,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으며(ㄴ), 동물을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ㄹ)고 비판한다.

바로잡기 ㄱ, ㄷ. 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주장이므로 갑이 을에게 제기할 비판에 해당한다.

127

(가)는 개체 복제된 인간이 자기 고유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 점을 통해 인간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체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인간 개체 복제를 허용하는 입장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인간 개체 복제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임 부부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인간 개체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이다.

128

(가)는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에 대한 경외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칸트의 입장이다. (나)는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보고, 인간 배아 복제는 질병 치료에 유용하므로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칸트는 이에 대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을 수단으로 대우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

바로잡기 ② 칸트는 사회적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지 않았다. ①, ④, ⑤ 칸트는 인간 배아 복제를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평가할 것이다.

129

제시문에서 갑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함께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갑과 을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130

㉠에 들어갈 말은 안락사이다.

131

안락사 찬성의 대표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둘째,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서 죽음의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연명 치료는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준다. 넷째, 연명 치료는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수준
안락사 찬성의 논거를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안락사 찬성의 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안락사 찬성의 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32

안락사 반대의 대표적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둘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넷째, 의료인의 기본 임무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므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채점 기준	수준
안락사 반대의 논거를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안락사 반대의 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안락사 반대의 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33

자살에 관한 동양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공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불교에서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에 따라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하므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본다.

채점 기준	수준
자살에 관한 동양의 관점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자살에 관한 동양의 관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34

자살에 관한 서양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신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으로 본다. 아퀴나스는 자살을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았다. 칸트는 자살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 회피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채점 기준	수준
자살에 관한 서양의 관점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자살에 관한 서양의 관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31쪽

135 ⑤ 136 ② 137 ⑤ 138 ①

135 삶과 죽음에 관한 동양의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장자와 공자의 주장 비교

갑: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이러한 이치에 통달한 지인(至人)은 물과 불이 다치게 할 수 없고, 추위와 더위가 해칠 수 없으며, 짐승들마저도 죽이지 못한다. 삶과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이상적 인간으로 '지인'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갑은 장자임을 알 수 있다.

을: 산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 섬기는 것을 잘할 수 있으며, 또 살아서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뒤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갖기보다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므로 공자의 주장이다.

갑은 장자, 을은 공자이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기(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공자는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처럼 장자와 공자 모두 죽음을 자연의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장자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인 덕이 아닌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였다. ② 장자는 삶과 죽음이 자연의 운행과 같은 것이며, 차별이 없기에 분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③ 공자는 죽음 이후보다는 현세에서의 도덕적 삶을 강조하였다. ④ 공자는 죽음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애도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다.

선택지 더 보기

- ⑥ 갑: 자연적 본성에서 벗어나 삶과 죽음에 초연해야 한다. (X)
 ⑦ 갑: 죽음 이후에도 기(氣)는 끊임없이 순환한다. (O)
 ⑧ 을: 죽음은 또 다른 존재로 윤회하기 위한 과정이다. (X)

136 삶과 죽음에 관한 서양의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주장 비교

갑: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상관이 없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함께 있지 않고, 죽었을 때는 감각이 사라져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인간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점을 통해 에피쿠로스를 알 수 있다.

을: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순수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육체에서 벗어나 영혼 자체로 사물 자체를 관찰해야 한다.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원불변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플라톤임을 알 수 있다.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없기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즉 죽음 이후에 영혼이 사물 그 자체(이데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다(ㄷ)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모두 지혜를 갖춘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플라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이상 세계인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에피쿠로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에피쿠로스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B: 죽음 이후에 인간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X)
 ㄴ. B: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가? (O)
 ㄷ. C: 현실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는 구분되지 않는가? (X)

137 유전자 치료의 윤리적 쟁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입장 비교

후세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의 허용을 주장한다.

갑: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모의 유전 질환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하여 후세대에 유전 질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

을: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반대한다. 유전 질환의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신체에만 적용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유전 질환 원인은 제거할 수 없지만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제시문의 갑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찬성하고, 을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는 반대, 체세포 유전자 치료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을의 입장은 갑의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X)와 후세대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유전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㉔이다.

138 인공 임신 중절의 윤리적 쟁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인공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 입장 비교

최근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현실 상황과 괴리된 법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 임신 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끝내는 행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태아는 성인과 동일한 신체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지닌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생명권이 있으므로, 태아 역시 생명권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공 임신 중절을 여성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밑줄로 표시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칼럼은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칼럼은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선택권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고 있다. ‘여성의 선택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인공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할 내용이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모두 인공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 칼럼의 입장과 동일하다.

04 사랑과 성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33쪽 ~ 34쪽

핵심 개념 문제

- 139 결혼 140 성의 자기 결정권 141 부부 142 성 상품화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54

제시문의 사상가는 사랑을 기술로 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려면 이론과 실천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본 점에서 에리히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의 요소로 보호, 책임, 존경, 이해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각각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경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프롬이 사랑의 요소로 제시한 존경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③, ④ 프롬은 사랑이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도 고양시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다. ⑤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며 받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155

제시문의 입장은 성이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랑과 성에 대한 자유주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영역이며, 성숙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성적 관계는 정당하다고 본다(두 번째, 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중도주의 입장에 가깝다. 자유주의는 성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숙한 성인들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면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 입장. 보수주의 입장에 가깝다. 자유주의는 혼인이 전제된 성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56

㉠은 성의 자기 결정권의 남용으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말한다. 성의 자기 결정권 남용으로 인해 타인의 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무고한 생명의 훼손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이 지닌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바로잡기 ㉡.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무제한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성의 자기 결정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157

제시문은 형제자매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형제자매는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관계로, 경쟁과 대립을 하면서도 동시에 친애하고 협동하는 관계이다.

바로잡기 ① 부부에 대한 설명이다. ③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서로 지켜야 할 규범이 존재한다. ⑤ 형제자매 간의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158

㉠은 가정 속 인간관계 중 가장 먼저 형성되므로 부부관계이다. 유교에서는 부부의 도리가 부자(父子), 군신(君臣)의 도리로 확대되며 모든 예(禮)의 근본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부부는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 원만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관계 즉, 모든 인륜이 시작되는 시초로서 서로 간에 조심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부부간에도 각자의 고유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니다. ③, ⑤ 부부관계는 위계가 존재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다.

159

(가)는 부부간의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므로 보수주의, (나)는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므로 중도주의 입장이다. 보수주의는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에 따라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할 때만 성적 관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중도주의는 사랑 중심의 성

윤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성적 관계는 정당화 가능하다고 본다. 보수주의, 중도주의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사랑과 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 행위는 상대의 인격성을 존중할 때 정당화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성적 행위는 도덕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다. ② 사랑과 성에 대한 자유주의 입장의 관점이다. ③, ④ 사랑과 성에 대한 보수주의의 관점이므로 (가)에 해당한다.

160

제시문은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의 글이다.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성 상품화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며(세 번째 입장),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여(두 번째 입장)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윤 극대화 추구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부합한다(네 번째 입장)고 본다.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논거이다.

실력 기출 문제

● 35쪽 ~ 36쪽

161 ① 162 ③ 163 ② 164 ③ 165 ④ 166 ④

1등급을 향한 새답형 문제

167 성차별 **168 예시 답안**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자유권을 훼손하고, 인권과 행복 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한다.

169 예시 답안 각 개인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되 고정된 성역할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양성 평등의 관점을 지니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가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분야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170 성의 자기 결정권**

171 예시 답안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등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61

제시문은 순수한 사랑은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한다고 보는 점에서 에리히 프롬의 주장이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생동감을 고양하는 활동이다.

바로잡기 ②, ③ 프롬은 사랑이란 복종이 아닌 상대방의 삶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능동적 활동으로 보았다. ④ 프롬은 사랑이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고, 자신의 존재도 고양시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았다. ⑤ 프롬은 사랑을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의 습득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보았다.

162

제시문의 사상가는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점을 통해 보부아르임을 알 수 있다. 보부아르는 여성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남성에 의해 규정되고 강요되어 온 것으로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네 번째 입장). 그리고 이를 비판하면서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두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보부아르는 특정 성별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자율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보부아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여성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1등급 정리 노트 보부아르와 밀의 양성평등 주장

보부아르	•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타자로 만들어졌음을 주장함 •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은 종속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 인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자연적 차원이 아닌 문화적 차원이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봄 → 여성들이 주체성을 자각하여 자율적·독립적 주체로 거듭나야 함
밀	•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다고 주장함 • 여성에게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면 사회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봄 → 남녀평등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도움이 됨

163

제시문의 갑은 두 인격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적 계약, 즉 결혼을 한 부부간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칸트이다. 이러한 칸트의 입장은 성과 사랑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에 해당한다. 칸트의 입장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행위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칸트의 입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164

갑은 책임 의식을 지닌 성인 간의 자발적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자유주의 입장, 을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거쳐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보수주의 입장이다. 사랑과 성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강조하므로 자유주의에 대해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이 출산이며(ㄴ), 부부만이 바람직한 성적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ㄷ)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갑과 을이 부정할 주장이다. ㄴ. 자유주의는 사랑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인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165

제시문은 유교 사상에서 강조한 부부 윤리이다. 유교 사상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므로 서로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부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존경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상경 여빈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166

가상 편지는 유교 경전인 『효경』을 근거로 쓰였다. 유교 사상에 따르면, 효는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유교에서 정신적 공경보다 물질적 봉양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② 유교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례와 제례를 통해 효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③ 유교에서는 효의 시작이 자신의 몸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유교에서는 도리를 실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명예롭게 만드는 것을 효의 완성이라고 본다.

167

㉠에 들어갈 말은 성차별이다.

168

성차별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게 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평등권과 자유권을 훼손하고, 인권과 행복 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한다.

채점 기준	수준
성차별의 문제점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차별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69

성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인정하되 고정된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양성 평등의 관점을 지니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국가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분야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성차별의 해결 방안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차별의 해결 방안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70

㉠에 들어갈 말은 성의 자기 결정권이다.

171

성의 자기 결정권을 남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이 갖는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여 상대방에게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 둘째,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하는 등 생명을 훼손하는 부도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성의 자기 결정권 남용의 윤리적 문제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의 자기 결정권 남용의 윤리적 문제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1등급 문제

● 37쪽

172 ④ 173 ⑤ 174 ② 175 ③

172 프롬의 사랑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은 능동적인 활동이며, 상대방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해 봉사해 줄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인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이지 나에게 수단으로써 필요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하는 것이지, 상대를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칼럼의 내용은 사랑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보는 점을 통해 에리히 프롬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개성을 존중하며,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프롬은 자신과 상대방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프롬은 사랑이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프롬은 사랑이 자신과 상대의 생동감을 고양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⑤ 프롬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선택지 더 보기

- ⑥ 사랑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 ⑦ 사랑은 미성숙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에 근거해야 한다. (×)
- ⑧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다. (○)

173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입장 비교

성을 도덕적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닌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주의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갑: 성(性)은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의 문제로, 인격 존중의 의무만 다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성적 관계는 당사자들이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화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을: 성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적 관계는 결혼 이후에 자녀 출산과 관련을 가질 경우에만 도덕적이고 온전한 것이 된다.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을 혼인과 출산의 전제 여부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수주의 입장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의 갑은 자유주의, 을은 보수주의이다. 을의 입장은 갑의 입장에 비해 성의 가치를 출산에서 찾는 정도(X)와 성적 관계의 전제로 혼인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성적 관계에서 사랑보다 쾌락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㉔이다.

174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중도주의와 보수주의의 입장 비교

갑: 성(性)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굳이 성을 결혼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지만, 사랑 없이 쾌락만 추구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을 결혼 여부가 아니라 사랑의 전제 여부로 보므로 중도주의 입장이다.

을: 성은 가족 관계의 존속이나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인격적 교감과 함께 결혼과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을 결혼과 출산의 전제 여부로 보므로 보수주의 입장이다.

갑은 중도주의, 을은 보수주의이다. 중도주의, 보수주의 모두 성적 관계에서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해악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ㄱ). 보수주의는 결혼과 출산 중심의 성 윤리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성적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중시한다(ㄴ).

바로잡기 ㄴ. 중도주의는 사랑이 전제된 성적 관계를 도덕적으로 보지만, 보수주의는 사랑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면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B에 적절하지 않다. ㄷ. 중도주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성적 관계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보수주의는 부부 사이에서의 성적 관계가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B에 적절하지 않다.

175 성차별 문제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성차별에 대한 밀의 입장 파악

남성과 여성을 둘러싼 오늘날의 사회적 관계, 다시 말해 한쪽이 다른 한쪽에 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낸 원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인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이것은 완전 평등의 원리로 대체해야 마땅하다. 어느 한쪽의 권력이나 특권을 주면서 그 반대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성의 예속 상태를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의 진출에 방해하는 사회 상황을 비판한 점을 통해 밀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밀이다. 밀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이 받는 성차별 문제를 지적하였다. 밀은 성별에 따른 선천적

능력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기에 여성에게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기회가 제공된다면 사회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밀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Q5 자연과 생태윤리

기본 기출 문제

● 39쪽 ~ 40쪽

핵심 개념 문제

176 도구 177 도덕적 178 생태 중심주의 179 ○
180 × 181 ○ 182 ㉔ 183 ㉔ 184 ㉔ 185 ㉔
186 ㉔ 187 ㉔ 188 ㉔ 189 ㉔
190 ④ 191 ② 192 ⑤ 193 ① 194 ① 195 ⑤
196 ④

190

제시문은 지식은 힘이라고 말한 점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인 베이컨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베이컨은 자연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이며(ㄴ), 인간의 힘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지식에서 나온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생명 중심주의의 입장에 가깝다. 베이컨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ㄷ. 베이컨은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191

제시된 그림은 생명 중심주의와 관련된 노트 필기이다. 생명 중심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은 이성의 유무가 아니라 생명의 유무이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생명 중심주의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192

제시문은 인간이 동식물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일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점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인 아퀴나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 윤리에 따라 인간은 신의 모사로서 자연의 다른 존재들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생명 중심주의의 주장이다. 아퀴나스는 인간만이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② 아퀴나스는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③ 아퀴나스는 전일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자연을 바라보았다. ④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93

제시문은 고유의 가치를 갖는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므로 동물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건의 주장이다. 레건은 인간과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ㄱ). 특히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인간에 의한 사냥감이나 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레건은 모든 유정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ㄹ. 레건은 인간이 삶의 주체인 동물보다 언제나 우월한 존재라고 보지 않았다.

194

(가)는 불교의 연기설이다. 불교의 연기설에서는 만물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한다고 본다. 이러한 불교의 자연관은 환경친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잡기 ㉔ 모든 만물에 생명, 영혼,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것은 물할론적 자연관이다. ㉕ 도가의 자연관이다. ㉖ 유교의 자연관이다. ㉗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이다.

195

제시문은 대지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인 레오폴드의 주장이다. 레오폴드는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하는 대지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네 번째 입장), 인간은 이들 생태계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세 번째 입장)고 보았다. 또한, 인간은 대지의 정복자가 아닌 생태계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대지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두 번째 입장. 레오폴드는 대지를 지배와 이용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달리, 수많은 존재가 서로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파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196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친환경적 소비를 생활화하고(갑), 국가적으로는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정), 국제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병).

바로잡기 을. 개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전 지구적인 문제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 환경 문제는 현재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삶의 질 문제에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력 기출 문제

● 41쪽 ~ 44쪽

197 ② 198 ① 199 ① 200 ③ 201 ① 202 ②
203 ⑤ 204 ④ 205 ⑤ 206 ③ 207 ① 208 ④
209 ⑤ 210 ⑤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211 싱어 212 **예시 답안**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 즉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가지므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13 테일러 214 **예시 답안**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善)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즉,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선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197

갑은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점을 통해 레건, 을은 생명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보는 점을 통해 테일러임을 알 수 있다. 레건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을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이다(ㄱ)고 보았다. 레건과 테일러는 각각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를 지지하지만 공통적으로 개체론적 관점에서 어떤 생명체의 선이 생태계의 선보다 중시되는 경우가 있다(ㄹ)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레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동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ㄷ. 테일러는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198

갑은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라고 보므로 레오폴드, 을은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삼으므로 싱어이다. 레오폴드는 감정이 없는 존재, 즉 식물이나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ㄱ)고 보았다. 싱어는 이성적 능력이 도덕적 지위 유무의 기준이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지위 유무의 기준(ㄴ)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들은 고유의 이익 관심을 가진다고 보았다. ㄹ. 싱어는 개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생태계 자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99

갑은 동물이 이익을 지니며 이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 을은 대지 윤리를 말하고 있으므로 레오폴드이다. 싱어

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보았다.

바로잡기 ② 레건의 주장이다. ③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살아 있는 동식물은 물론 바위, 강, 광물 등을 포괄하는 대지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살아 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대지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레오폴드는 인간이 어떤 생명체들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⑤ 싱어와 레오폴드는 모두 동물을 인간의 유용성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0

갑은 생명 외경 윤리를 제시하므로 슈바이처, 을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육식을 반대하므로 싱어이다.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까지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슈바이처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보아 생명에 대한 외경(畏敬)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행위를 선택한 행위로 보았다. ④ 싱어는 유정성의 여부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았다. ⑤ 인간 이외의 생명체 중에 슈바이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를,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1등급 정리 노트 슈바이처의 생명 중심주의

-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지님
- 인간은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며, 그럴 경우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함

201

갑은 삶의 주체들은 자신들의 삶을 경험해 가는 중심이라고 보므로 레건, 을은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여기므로 테일러이다. 레건은 인간을 비롯한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만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레건과 테일러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레건과 테일러는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③ 테일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테일러는 인간이 모든 생명체에 대해 의무를 지닌다고 보았다. ④ 레건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레건은 삶의 주체에 대한 학대는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⑤ 레건과 테일러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레건과 테일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생태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02

갑은 대지 윤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레오폴드, 을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고려하므로 싱어이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자로서 인간은 물론 대지도 생명 공동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로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따라서 레오폴드와 싱어 모두 도덕적 행위의 주체인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며(ㄱ), 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자율성과 합리성을 지니는 존재, 즉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이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자로서 모든 생명체와 대지까지,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자로서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ㄹ. 레오폴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3

갑은 자연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것이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직접적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보므로 칸트, 을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말하므로 싱어이다. 칸트는 동물 학대 금지의 이유를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본 반면, 싱어는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ㄷ)이라고 보았다. 싱어는 유정적 존재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였다(ㄹ).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를 지지하고,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를 지지하였지만 공통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ㄱ).

바로잡기 ㄴ. 칸트와 싱어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칸트와 싱어는 모두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라고 보았다.

204

갑은 모든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므로 테일러, 을은 대지 윤리를 말하므로 레오폴드이다. 레오폴드는 무생물과 생명체 모두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의 목적과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생명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보았다. ③ 레오폴드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와 대지까지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⑤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모두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의 주체라고 보았다.

205

갑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말하므로 싱어, 을은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이들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므로 레건이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았다(ㄱ). 레건은 이성적 능력이 없는 존재 중에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 즉 한 살 이상의 지능을 가진 포유동물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ㄴ). 한편, 싱어와 레건은 모두 삶의 주체인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ㄷ).

바로잡기 ㄷ. 레건은 모든 동물이 아니라 한 살 이상의 지능을 지닌 포유동물을 삶의 주체로 보았다.

206

제시문은 자신의 몸을 닦아 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바르게 세우는 방법이라고 보므로 유교 사상의 주장이다. 유교에서는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보지 않으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유교 사상의 자연관에 대한 설명이다.

207

갑은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신성하다고 보므로 슈바이처, 을은 삶의 주체들이 개별적 복지를 가진다고 보므로 레건이다. 슈바이처와 레건은 모두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고 보았다(ㄱ).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반면, 레건은 인간과 일부 동물들이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즉, 레건은 모든 생명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ㄴ).

바로잡기 ㄷ. 레건은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레건은 모든 긍정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삶의 주체인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208

(가)는 일체의 생물에 한없는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므로 불교 사상, (나)는 군자는 만물을 아끼고 백성을 인애한다고 보므로 유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불살생의 계율을 중시한다(ㄴ).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설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다. 유교에서는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지향한다. 이처럼 불교와 유교에서는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조화를 추구하며 서로 우열이 없다(ㄹ)고 본다.

바로잡기 ㄱ. 불교에서는 자연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ㄷ. 유교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보지만, 자연과 인간을 똑같이 대우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209

갑은 현세대의 행위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요나스이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르면, 기후 위기를 막고 환경을 보전할 책임은 인간에게만 있으며(ㄷ), 인류의 존속 즉,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의 일방적 의무임을 인식해야 한다(ㄹ). 이처럼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ㄱ.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르면,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인류의 존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ㄴ. 요나스의 책임 윤리에 따르면, 인류에게는 기후 변화의 사전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이 있다.

1등급 정리 노트 요나스의 책임 윤리

책임 윤리	인류가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에 근거하여 현세대가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할 책임을 지닌다고 주장함
생태학적 정언 명령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하라.” “너의 행위의 결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 새로운 정언 명령을 제시함으로써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당위적 책임) 강조
현세대의 책임	-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가 도출됨 - 인류가 지구상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현세대가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지님 - 인간 행위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책임 범위를 확장해야 함

210

제시문은 기후 변화와 기후 정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시문은 기후 변화의 주된 책임을 선진국이 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원인을 더 많이 제공한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제시문은 기후 변화의 주된 책임은 선진국에게 있다고 본다. ② 제시문은 기후 정의 문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③ 제시문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④ 제시문은 기후 변화에 따른 부담을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211

제시문은 싱어의 주장이다.

212

싱어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 즉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이익 관심을 가지므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채점 기준	수준
공리주의, 쾌고 감수 능력,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공리주의, 쾌고 감수 능력,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공리주의, 쾌고 감수 능력,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213

제시문은 테일러의 주장이다.

214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善)을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즉,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종(種)을 재생산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선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채점 기준	수준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 중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 고유의 선을 모두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정답 1등급 문제

• 45쪽

215 ① 216 ④ 217 ④ 218 ①

215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테일러, 칸트, 레건의 입장 비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각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므로 테일러이다.
 갑: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각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인간은 실천 이성을 지닌 존재로,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병: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니며,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보므로 칸트이다.
 병: 인간과 인간이 아닌 삶의 주체는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다. 이런 개체들은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 안 된다. 삶의 주체인 존재는 도덕적 권리를 가지며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레건이다.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 병은 레건이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대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를, 칸트는 이성적 행위자 즉 인간만을, 레건은 인간과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까지라고 보았다(ㄱ, ㄴ).

바로잡기 ㄷ. 삶의 주체인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테일러와 레건의 공통 입장이므로 C에 적절하지 않다.

ㄹ. 테일러, 칸트, 레건은 모두 불가피한 경우에 다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D에 적절하지 않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A: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X)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O)
 ㄷ.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X)

216 자연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데카르트의 입장 이해

이 세상에는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 기계론을 근거로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므로 데카르트이다.

제시문은 데카르트의 주장이다. 데카르트는 인간 중심주의자로서 인간만이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첫 번째 입장). 그리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두 번째 입장). 또한 인간만이 존엄한 정신이 있는 존재이며, 정신이 없는 동물과 자연은 단순한 물질이자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데카르트는 사유 능력이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217 생태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레오폴드와 싱어의 입장 비교

갑: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만이 아니라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
 대지의 이용을 윤리적 관점에서도 고찰해야 한다고 보므로 레오폴드이다.
 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에 대해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적용을 말하므로 싱어이다.

갑은 레오폴드, 을은 싱어이다. 레오폴드와 싱어는 모두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ㄱ)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모든 생명체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고 보지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ㄴ)고 보았다. 싱어는 동물의 고통도 인간의 고통처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의 고통을 저급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A에 적절한 내용이다. 레오폴드와 싱어는 모두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A: 생명이 없으면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 개체가 있는가? (X)
 ㄴ. B: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근거인가? (X)
 ㄷ. C: 인간과 동물의 고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O)

218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의 특징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싱어와 테일러의 입장 비교

갑: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지능이나 합리성과 달리, 고통을 겪거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하게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된다.
 지능, 합리성 등의 인간 특성이 아닌,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보므로 싱어이다.
 을: 생명체는 종족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적인 조건들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선을 지향하는 존재로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므로 테일러이다.

잡은 싱어, 을은 테일러이다. 싱어는 꽤고 감수 능력의 소유 여부만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라고 보았지만, 테일러는 꽤고 감수 능력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싱어와 테일러는 모두 인간은 동물과 달리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으므로 B에 적합하다. ③ 싱어와 테일러는 이성적 능력은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④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어졌다고 보는 것은 테일러만의 입장이므로 C에 적합하다. ⑤ 테일러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단원 마무리 문제

03 출생 및 죽음과 생명윤리

219 ⑤ 220 ③ 221 ④ 222 뇌사 223 예시 답안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이므로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04 사랑과 성 윤리

224 ① 225 ② 226 ⑤ 227 성 상품화 228 예시 답안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과도하게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인격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05 자연과 생태윤리

229 ⑤ 230 ④ 231 ③ 232 ③ 233 ④ 234 ② 235 ④ 236 ⑤ 237 불침해(악행 금지), 불간섭, 성실(신의), 보상적 정의 238 예시 답안 불침해(악행 금지)의 의무는 생명체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불간섭의 의무는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성실(신의)의 의무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냥, 낚시 등 야생 동물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219

제시문은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라고 보므로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며,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므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장자는 죽음이 자연의 순환 과정이므로 죽음에 슬퍼하지 말고 초연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죽음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다. ③, ④ 장자는 삶과 죽음은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연의 변화 과정이므로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220

제시문은 죽음은 해체되어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므로 에피쿠로스의 주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으면 감각이 상실되므로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无)으로 보았다. 죽음에 대해 이러한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无)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상실되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감각이 있으므로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불멸에 대한 열망을 극복할 수 있다.

221

제시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라고 보는 점에서 칸트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칸트는 자살을 인격을 한낱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인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는 도덕 법칙에 어긋난 비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칸트가 제시한 행위의 도덕성 판단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222

㉠에 들어갈 말은 뇌사이다.

223

뇌사를 죽음의 판정 기준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는 인간의 생명 활동을 핵심 기관이므로 뇌 기능이 정지하면 이미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둘째, 인공호흡기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뇌사를 인정하는 논거를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뇌사를 인정하는 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뇌사를 인정하는 논거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224

제시문의 사상가는 배려가 배려를 하는 사람과 배려를 받는 사람의 상호 교감 속에서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나딩스이다. 나딩스는 인간에 대한 배려가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자 토대라고 보았으며(ㄱ), 배려자와 피배려자의 배려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적절한 도덕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ㄴ).

바로잡기 ㄷ. 나딩스는 타인에 대한 감정이 도덕적 선행의 토대라고 보았다. ㄹ. 나딩스는 이성적 도덕 판단보다 타인과의 유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225

(개)는 부부간의 윤리에 대한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유교는 아내
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며 부부는 서로 동등한 관계라고
본다(ㄱ).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ㄷ).

바로잡기 ㄴ, ㄹ. 유교에서 부부는 동등한 관계이지만 남녀의 차이를 바탕
으로 역할에 구분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공
경해야 한다고 보았다.

226

토론에서 갑은 성 상품화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을은 성 상품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은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가 정당
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을은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이윤 추구는
인격을 훼손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갑과 을이 토론 과정에서 모두 동의하고 있는 내
용이다.

227

㉠에 들어갈 말은 성 상품화이다.

228

성 상품화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둘째, 과도하게 성을 상업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인격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성 상품화의 문제점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 상품화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229

제시문의 사상가는 동물에 관한 의무가 인간에 대한 간접적 의무
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칸트는 목적 그 자체
인 존재, 즉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
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칸트는 인간 이외의 존재가 지니는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였
다. ②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 의무를 지닌다. ③
칸트는 동물을 포함한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에 대한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④ 칸트는 자의식을 지니지 못한 존재는 도덕적 지
위를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230

제시문의 사상가는 쾌고 감수 능력이 이해관계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는 점에서 싱어이다. 싱어는 도덕적 행위 능력이 없
더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를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싱어는 동물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
다. ② 싱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자연 전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보았다. ③ 싱어는 모든 생명체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를 인간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231

제시문의 사상가는 대지 윤리를 주장하므로 레오폴드이다. 레오
폴드는 이성적 주체인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서 대지 공동체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녀
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식물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존재인 토양, 물 등을 포함한 대지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레오폴드는 생태계에 대한 경제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았
다. ㄹ. 레오폴드의 입장에서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지만, 관리자가
아니다.

232

제시문의 사상가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보므로 테일러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다
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며(두 번째 입장),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보상적 정
의의 의무를 지닌다(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레오폴드의 주장이다. 세 번째 입장. 테일러는 목
적론적 삶의 중심인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았지, 도덕
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233

제시문의 사상가는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를 제시하는 점에
서 요나스임을 알 수 있다. 요나스는 인간만이 환경 보전을 책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
세대의 희생은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류 존속에 대
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현세대는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요나스에 따르면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즉 인류 존속을 위한 행위이다. ㄷ.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에
게 인류 존속을 위한 일방적 책임이 있다.

234

갑은 대지 윤리를 주장하므로 레오폴드, 을은 쾌고 감수 능력을
주장하므로 싱어이다. 레오폴드는 인간과 동식물뿐만 아니라 대
지를,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
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레오폴드와 싱어 모두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레오
폴드는 전일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개별 유기체보다 생태계 전체

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지만,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레오폴드와 싱어가 모두 부정할 입장이다. ㄹ.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이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보았다.

235

제시문의 사상가는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타자와 별개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레건이다. 레건은 의무론에 근거하여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ㄴ)고 보았다. 그리고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할 지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레건은 이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ㄷ. 레건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236

제시문은 환경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의 환경 문제는 지구의 자정 능력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지구의 자정 능력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환경 문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237

테일러가 제시한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는 불침해(악행 금지), 불간섭, 성실(신의), 보상적 정의의 의무이다.(순서 무관)

238

불침해(악행 금지)의 의무는 생명체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불간섭의 의무는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이다. 성실(신의)의 의무는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사냥, 낚시 등 야생 동물을 속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이다.

채점 기준	수준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를 네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를 세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를 두 가지 이하로 서술한 경우	하

III 과학과 디지털 학습 환경 윤리

06 과학 기술과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51쪽 ~ 52쪽

핵심 개념 문제

239 과학 기술 지상주의(낙관주의) 240 가치 중립적
241 내적 책임 242 공포의 발견술 243 ○ 244 ×
245 × 246 ○ 247 긍정 248 긍정 249 부정 250 부정

251 ④ 252 ③ 253 ① 254 ⑤ 255 ③ 256 ④
257 ④

251

㉠은 과학 기술이다. 과학 기술은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의 결과를 통해 발달하였다(㉠). 과학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 영향으로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환경 파괴, 인간의 주체성 상실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고 있어 과학 기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바로잡기 ㉣ 과학 기술은 비이성적 믿음에 근거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52

그림 속 교사의 질문에 따라 과학 기술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신약 개발을 이끌어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하였으며(을), 자동화와 기계화에도 영향을 주어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 사람들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정).

바로잡기 갑, 병.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253

제시문은 환경 오염과 같이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과학 기술 혐오주의(비관주의)의 입장이다.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 기술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측면을 부각하는데, 예를 들어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의 발달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ㄱ),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한다(ㄴ)는 것이다.

바로잡기 ㄷ, ㄹ. 과학 기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이다.

254

제시문은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과학 기술의 연구 목적 설정에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ㄹ)고 본다. 또한 과학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ㄷ)고 본다.

바로잡기 ㄱ, ㄴ.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관점에 해당한다.

255

제시문의 갑은 과학 기술자의 책임이 연구 윤리 준수뿐이라고 말하므로 내적 책임만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을은 과학 기술자의 책임이 연구 윤리 준수와 더불어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을은 과학 기술자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면서 연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갑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실험자의 동의와 같은 연구 과정에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④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과 사회를 상호 작용하는 영역으로 보므로 과학 기술자가 사회로부터 독립적 영역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⑤ 을에만 해당한다.

256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으로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ㄴ),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ㄱ), 다른 연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ㄹ)는 것이 있다.

바로잡기 ㄷ.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에 해당한다.

257

(개)는 과학 기술자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의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와 과학 기술의 영향에 대한 과학 기술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의한 영향에서 과학 기술자가 면책되어서는 안 된다(ㄱ)고 보며, 연구 결과가 가져올 상황을 예측하며 연구에 임해야 한다(ㄷ)고 본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해야 한다(ㄹ)고 본다.

바로잡기 ㄴ.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연구의 과정에서 윤리적 규제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력 기술 문제

● 53쪽 ~ 54쪽

258 ⑤ 259 ⑤ 260 ② 261 ① 262 ⑤ 263 ③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264 가치 중립적 **265** [예시 답안] 과학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과학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화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66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 **267** [예시 답안] 인류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개발, 과학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이 있다.

258

제시문은 과학이 위험하기에 감시해야 하며, 과학이 최고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므로 과학 기술 혐오주의(비관주의) 관점이다.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과학을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이 해악이라고 도덕 판단을 한다. ②, ③, ④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59

제시문의 ‘나’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과 풍요를 무한히 누릴 수 있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며,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 인간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이다. 과학 기술 지상주의는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과학 기술의 발달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 과학 기술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어떤 사람’은 과학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②, ④ ‘나’는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 균형적으로, 중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나’의 입장에서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260

(개)에 근거하여 (나)의 ㉠을 도출하면 ‘객관적 지식을 다루는 과학 기술자의 연구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연구이다.’이다. 이는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반론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은 연구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해당한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261

제시문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고 보는 점에서 하이데거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 발달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 발달을 고려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술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적 성격을 가지지만(㉡),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수단이라고 말하였다.

바로잡기 ㉡. 하이데거는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을 남용할 경우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262

제시문은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희망보다는 공포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공포의 발견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데, 이는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인간만이 인류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바로잡기 ① 요나스는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며, 현재세대, 미래세대, 자연을 책임의 대상으로 보았다. ②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재 발생한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위험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새로운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는데, 정언 명령이란 조건 없는 명령의 형태이다. ④ 요나스는 미래의 위험을 예방하려면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적 태도를 반대하였다.

263

같은 과학 기술자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보므로 내적 책임만을 인정하는 입장, 이른바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토론의 쟁점은 연구 주체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가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⑤ 갑, 을 모두 긍정하므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④ 갑, 을 모두 부정하므로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264

㉠에 들어갈 말은 ‘가치 중립적’이다.

265

과학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치가 개입되어 있다. 과학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은 과학 기술이 객관적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화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구 대상의 선정 및 결과 활용의 과정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채점 기준	수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비판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상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비판하는 근거 없이 서술한 경우	하

266

㉠은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을 뜻한다.

267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의 개발, 과학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 및 대처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과학 기술자의 외적 책임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1등급 문제

• 55쪽

268 ③ 269 ① 270 ② 271 ②

268 책임 윤리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요나스의 주장 이해

공포의 발견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요나스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새로운 대상을 찾아내어 공포에게 서술할 뿐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일깨워진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알게 해 준다. 윤리의 이론은 선함의 표상만큼이나 악의 표상을 필요로 하며, 선의 표상이 우리의 시야에서 불분명해지고 예상된 새로운 악의 위협으로 인하여 선의 표상이 다시 명확해져야만 할 때, 악의 표상은 더욱 필요하다.

제시문은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한다(네 번째 입장)고 보았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책임의 대상을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해진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예방적 책임까지 강조하였다(세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인간에 대한 의무가 상실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나스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두 번째 입장. 요나스는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라고 주장하였다.

269 과학 기술자의 책임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 파악

갑: 과학 기술은 사회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발전할 수 있다. 과학 기술자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를 실시했다면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과학 기술자가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만을 지킨다면 그 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을: 과학 기술 연구의 핵심 주체인 과학 기술자도 전문적 종사자이다. 직업에 따른 윤리 의식이 있듯이 과학 기술자에게도 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과학 기술자에게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제시문의 갑은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만 인정하는 입장이며, 을은 과학 기술자의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외적 책임(사회적 책임)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갑에 비해 을은 상대적으로 과학 기술의 책임은 연구 과정에만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과학 기술자에게 사회적 선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하는 정도(Y)와 과학 기술자의 연구 결과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㉗이다.

270 기술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주장 비교

기술은 그저 수단일 뿐, 선악이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야스퍼스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갑: 기술이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 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을: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현대의 기술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라는 의미의 뒤아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므로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가)의 갑은 야스퍼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고 본 반면, 야스퍼스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여 기술이 인간의 이익을 위한 불가치적 도구라고 보았다(ㄱ).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기술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ㄴ).

바로잡기 ㄴ.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술을 남용하면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술의 활용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B에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ㄷ. 하이데거는 기술을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보았다. 하지만 기술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는 수단이므로 인간의 이용 없이는 사회의 해악이 될 수 없다.

271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입장

갑: 과학은 지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윤리적 원칙 같은 것에 영향을 받거나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만을 추구한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만을 추구한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을: 가치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지 않은 사실이란 없다. 과학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자체가 사회의 가치들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과학에는 가치가 개입된다. 과학에는 가치가 개입된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가)의 갑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입장, 을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의 탐구는 사실을 다루므로 그 과정에서 가치가 배제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⑤ 을이 갑에게 제시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정보 사회와 윤리

기본 기술 문제

● 57쪽 ~ 58쪽

핵심 개념 문제

272 정보 사회	273 뉴 미디어	274 정보 자기 결정권
275 저작권	276 미디어 문해력	277 상호 작용화
278 탈대중화	279 비동시화	280 능동화
281 ㉗	282 ㉘	283 ㉙

284 ㉙ 285 ㉘ 286 ㉚ 287 ㉛ 288 ㉜ 289 ㉝
 290 ㉞

284

제시문은 정보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정보 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국가의 사람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바로잡기 ①, ③ 정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다. ②, ④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다.

285

제시문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고 본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보 사회로 변하면서 사생활 침해, 사이버 폭력, 가짜 뉴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증대되었고(ㄴ),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 유포가 증가하였다(ㄷ).

바로잡기 ㄱ, ㄴ. 정보 통신 기술 발달의 긍정적 측면이다.

286

제시문의 ㉗은 가상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지칭하므로 '사이버 폭력'이다.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287

갑은 정보 윤리의 기본 원칙 중 정의의 원칙을, 을은 해악 금지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288

제시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저작권 보호론(카피라이트)의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론은 지식 재산권의 보장으로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으며(ㄱ), 정보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ㄴ)고 본다.

바로잡기 ㄷ, ㄴ. 저작권 공유론(카피레프트)의 입장이다.

289

제시문의 A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포털 사이트 등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잊힐 권리이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바탕으로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잊힐 권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수단이 강화되어야 보장될 수 있다. ② 타인의 알 권리를 우선하면 잊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④ 개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잊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개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면 자기 정보 통제권이 줄어든다.

290

제시문은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윤리적 방안에 대해 묻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가짜 뉴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실력 기술 문제

● 59쪽 ~ 60쪽

291 ④ 292 ④ 293 ① 294 ③ 295 ③ 296 ①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297 정보 격차 **298** 예시 답안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용 기회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 또 정보 격차로 인해 전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99 예시 답안 인터넷 접근성 개선, 미디어 문해력 교육, 정보 기기 지원 등이 있다. **300** 예시 답안 가짜 뉴스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 정도가 크고 그 회복이 어려우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301 예시 답안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개인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291

제시문은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보 격차는 정보 소외 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ㄷ). 그리고 정보 접근 기회에 따라 고용 기회의 차별이 심화되어(ㄴ),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도 영향을 미친다(ㄱ).

바로잡기 ㄴ. 정보 격차를 해결하려면 미디어 문해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292

갑은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므로 저작권 보호론(카피라이트), 을은 정보는 사회에서 창작된 공공재이므로

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저작권 공유론(카피레프트)의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론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다(ㄱ, ㄴ)고 본다. 저작권 공유론은 정보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보장하기보다 자유롭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ㄷ)고 본다.

바로잡기 ㄴ. 을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293

제시문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가 판옵티콘 사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므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될 부정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 개인 자유의 제약이나 통제 가능성 증대(ㄱ), 감시 증가로 인한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ㄷ, ㄴ. 제시문은 정보 사회에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보 통신 기술이 악용될 우려가 커진다고 볼 것이다.

294

갑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을은 잊힐 권리를 강조하면 공공의 알 권리가 훼손된다고 보아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잊힐 권리가 보장되면 객관적 사실에 대한 투명성이 저해되어 추후에 미래 세대가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잊힐 권리의 보장은 인터넷 기사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② 잊힐 권리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갑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④ 알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정보 공유를 중시한다. ⑤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한다.

295

제시문의 (가)는 인터넷을 통해 가공, 전달, 소비하는 포괄적 융합 매체, 즉 뉴 미디어이다. 뉴 미디어는 정보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이 낮다는 정보의 객관성 문제(ㄴ), 정보의 유통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ㄷ). 이외에도 책임의 분산에 따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뉴 미디어의 특징이다. ㄴ. 뉴 미디어의 긍정적 측면이다.

296

그림의 강연자는 미디어 문해력이 올바른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미디어 문해력을 강화하면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시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② 강연자는 미디어 문해력의 영향은 교육 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과 정보 선택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③ 강연자는 미디어 문해력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④ 강연자는 미디어 문해력의 향상으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⑤ 강연자는 미디어 문해력이 약화되면 거짓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확대된다고 본다.

297

㉠에 들어갈 말은 정보 격차이다.

298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고용 기회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 또 정보 격차로 인해 전문 직업에 접근하기 어려워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정보 격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정보 격차의 문제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299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인터넷 접근성 개선, 미디어 문해력 교육, 정보 기기 지원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정보 격차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300

가짜 뉴스는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 정도가 크고 그 회복이 어려우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의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의 근거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301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개인의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채점 기준	수준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제를 반대하는 근거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61쪽

302 ⑤ 303 ⑤ 304 ② 305 ⑤

302 정보 사회의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잊힐 권리와 알 권리의 비교

온라인에서의 잊힐 권리 보장을 강조한다.

갑: 온라인에 공개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과거의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을: 알 권리는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중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갑은 온라인에서의 잊힐 권리를 강조하고, 을은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갑은 정보의 공유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ㄴ)고 보고, 을은 공익과 같은 사회 유용성을 기준으로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ㄷ)고 말한다. 그리고 을은 알 권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다(ㄹ)고 본다.

바로잡기 ㄱ. 을은 잊힐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는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갑, 을 모두 잊힐 권리를 인정하므로 A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303 뉴 미디어 사회의 윤리적 쟁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정보의 신뢰성 문제 이해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즉 한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자칫 허위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인터넷 가짜 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허위 정보의 유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가짜 뉴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디어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시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세 번째 입장). 또 표현의 자유를 도덕과 무관하게 생각하면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두 번째 입장). 그리고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디어 문해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가짜 뉴스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304 정보 격차에 대한 이해

1등급 자료 분석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이해

갑: 정보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 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료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 환경 개선 및 정보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향상보다 정보의 관리가 중요하다.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오래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 개선 및 정보 활용 교육보다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제시문의 갑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접근 환경 개선, 정보 활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른 정보의 질적 개선 등의 관리를 강조한다. 따라서, 정보 접근의 편리성을 증대하여 정보 격차를 줄일 것을 강조하는 정도(X)와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하여 정보 격차를 줄일 것을 강조하는 정도(Y)는 낮고, 정보의 질을 향상하여 정보 격차를 줄일 것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따라서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㉔이다.

305 저작권 침해 문제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주장 비교

창작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보므로 저작권 보호론(카피라이트)에 해당한다.

갑: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복제,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창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을: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여 창작물이 지닌 가치를 높이고 함께 나누어야 한다.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 부여가 아닌,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강조하므로 저작권 공유론(카피레프트)에 해당한다.

갑은 저작권 보호론, 을은 저작권 공유론의 입장이다. 저작권 보호론과 달리, 저작권 공유론은 정보가 공공재로서 제한 없이 사용되고 유통되면 정보의 질이 향상되어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저작권 공유론만의 입장이다. ④ 저작권 보호론만의 입장이다.

08 인공지능과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63쪽 ~ 64쪽

핵심 개념 문제

306 도구적	307 자율성(행위 능력)	308 편향성
309 ○	310 ×	311 ○
312 ㉔	313 ㉔	314 ㉔
315 ㉔	316 ㉔	317 ㉔
318 ㉔	319 ㉔	320 ㉔
321 ㉔	322 ㉔	323 ㉔

318

제시된 그림의 전문가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능력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전문가의 입장에 해당한다.

319

슈퍼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을)으로, 인공지능 중 가장 발달한 수준에 해당한다(정).

바로잡기 갑, 병.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다.

320

제시문은 인공지능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성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ㄱ). 이러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달리 지속적인 지식 축적 능력이 있으며(ㄴ), 인간의 개입 없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ㄷ).

바로잡기 ㄷ. 인공지능은 소리와 같은 무형의 정보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321

제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의 원인을 묻고 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인공지능이 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 개입되어, 학습 데이터가 전체 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바로잡기 ㉔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의 원인이다. ㉔ 인공지능의 사생활 침해 문제의 원인이다.

322

신문 칼럼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로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비판한다. 따라서 ㉔에는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바로잡기 ① 신문 칼럼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다. ③ 신문 칼럼은 인공지능 문제에서 개발자도 책임의 주체 중 하나로 포함된다고 본다. ④ 신문 칼럼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⑤ 신문 칼럼은 인공지능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323

(가)는 인공지능이 보편적 복지의 향상, 약자의 접근성 보장 등의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인공지능의 사회의 공공선 원칙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삶의 번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윤리적 과정에 따라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인공지능의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24 ④ 325 ① 326 ⑤ 327 ⑤ 328 ② 329 ②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 330** 도구 **331** [예시 답안] 인공지능의 자율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인공지능의 존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 332** 투명성 **333** [예시 답안]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불분명한 이유로 특정 후보자를 불합격시킨다면 이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334** [예시 답안]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절차나 알고리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24

세 학생 중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인공지능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A는 인공지능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물리적 존재로서 기계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ㄱ) 언제나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ㄷ).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본다(ㄴ).

바로잡기 ㄴ. 인공지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325

갑은 인공지능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도구적 관점, 을은 인공지능을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므로 인공지능의 자율성 인정의 관점이다. 도구적 관점에 비해 자율성을 인정하는 관점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돕는 단순한 수단임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Y)와 인공지능이 환경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326

갑은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덕적 행위자 또는 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을은 현재의 인공지능은 자율성이 없으므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대리자라고 본다. 갑, 을은 모두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진다면 도덕적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갑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수단이 아닌 도덕적 행위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② 갑은 인공지능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 ③ 을은 인공지능에는 자율성이 없다고 본다. ④ 을은 인공지능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본다.

327

제시문은 형사 재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인공지능의 사법적 판단을 선호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제시문은 형사 재판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해도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과거의 편견과 차별을 다룬 결과물, 즉 기존의 판례들이므로 사회적 차별을 완화하거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328

인공지능의 3대 기본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이다. 이때 사회의 공공선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이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관점에서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향상할 것을 다룬다.

바로잡기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에 해당한다. ③ 사회의 공공선 원칙에 해당한다. ④, ⑤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에 해당한다.

329

제시문은 아시모프의 로봇 윤리 3원칙으로,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을 개발하라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로봇 윤리에서는 로봇보다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우위에 둔다. ③ 로봇은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④ 로봇 윤리에서는 인간의 안전이 로봇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다. ⑤ 로봇 윤리에 따르면, 로봇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다.

330

㉠에 들어갈 말은 도구이다.

331

인공지능의 자율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인공지능의 존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인공지능의 자율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인공지능의 존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모두 작성한 경우	상
인공지능의 자율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인공지능의 존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 중 한 가지만 작성한 경우	중
인공지능의 자율성 또는 행위 능력을 강조하는 관점, 인공지능의 존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하나도 작성하지 못한 경우	하

332

㉠에 들어갈 말은 투명성이다.

333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 불분명한 이유로 특정 후보자를 불합격시킨다면 이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인공지능의 투명성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인공지능의 투명성 문제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334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학습 절차나 알고리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인공지능 투명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인공지능 투명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335 ④ 336 ③ 337 ③ 338 ⑤

335 인공지능의 종류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약한 인공지능과 슈퍼 인공지능의 특징 비교

갑: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특정 작업이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설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능을 갖추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약한 인공지능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을: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유익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여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문제 해결, 창의성, 감정 이해 등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초월하여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슈퍼 인공지능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갑은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 을은 슈퍼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약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지만, 슈퍼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제한해서는 안 된다(ㄱ)고 본다. 약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ㄴ)고 본다. 슈퍼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날 수 있다(ㄷ)고 본다.

바로잡기 ㄷ. 약한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보므로 을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36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인공지능에 관한 비관적 입장 이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게 되고, 결국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지속적 진화로 인해 발생할 비관적 미래를 제시하므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제시문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종속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제시문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337 인공지능으로 인한 윤리적 문제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에 따른 입장 비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일 경우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갑: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특정 집단이나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 알고리즘의 문제 등으로 발생하며, 특정 인종 집단을 불합리하게 판단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제한적 분야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은 편향성 문제를 가지므로 제한적 분야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을: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기술 발전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는 데이터 다양성 확보,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성 검토 및 수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분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갑은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근거로 인공지능의 사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 을은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는 해결 가능하므로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두 입장은 모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포함된 편향성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④, ⑤ 갑, 을의 입장에 해당하므로 B에 적절한 진술이다. ② 을의 입장에만 해당하므로 C에 적절한 진술이다.

338 인공지능 윤리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이해

인공지능 윤리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공정성, 알고리즘의 투명성, 책임성, 개인 정보 보호,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제시문은 인공지능 윤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결정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하며(두 번째 입장),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세 번째 입장)고 볼 것이다. 그리고 불공정한 기준에 따른 편향적 정보를 수집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네 번째 입장)고 볼 것이다.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 볼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06 과학 기술과 윤리

339 ③ 340 ③ 341 ④ 342 ⑤ 343 ① 344 수단

345 ㉠ 날조, ㉡ 변조, ㉢ 표절

07 정보 사회와 윤리

346 ① 347 ① 348 ③ 349 ③ 350 잊힐 권리

351 [예시 답안]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경우, 잊힐 권리를 악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인 기록을 은폐하려 할 수 있다.

08 인공지능과 윤리

352 ④ 353 ② 354 ① 355 ④

356 [예시 답안]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지배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자율성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357 [예시 답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인공지능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인간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9

갑은 과학 기술이 인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 을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이다. 과학 기술 혐오주의는 과학 기술에는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법률이나 정책 등과 같은 신중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과학 기술 혐오주의의 입장이다. ④, ⑤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다.

340

그림의 강연자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진다고 보므로 하이데거이다.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 아니므로(ㄷ) 기술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ㄴ.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341

제시문의 사상가는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새로운 명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는 확대되며(ㄴ), 인간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는 미래 세대는 물론, 자연 등 비이성적 존재도 포함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요나스는 비이성적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ㄷ. 요나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342

갑은 과학자가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을은 과학자는 연구가 인류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즉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가 개입되지 않도록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므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모두 강조하는 입장이다. 을은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즉 내적 책임을 중시하며(ㄷ), 연구 결과의 부작용을 숙고하는 것 즉 외적 책임도 중시한다(ㄹ).

[바로잡기] ㄱ.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내적 책임에 해당한다. 갑, 을은 모두 내적 책임을 강조하므로 A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ㄴ. 연구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내적 책임에 해당하는데, 갑은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이므로 B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343

제시문은 과학 기술 연구에 가치의 문제는 불필요하다고 보므로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과학 기술에는 자체적인 발전 논리가 있으며(첫 번째 입장), 과학 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과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학 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두 번째 입장)고 본다.

[바로잡기] 세 번째, 네 번째 입장.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344

㉠에 들어갈 말은 수단이다.

345

㉠, ㉡, ㉢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날조, 변조, 표절이다.

346

제시문의 ‘나’는 정보 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정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는 등 정보 사회로 인해 교육 및 학습의 기회가 확장되었음을 간과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개인 정보에 대한 제약 없는 접근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③, ④, ⑤ 정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다.

347

신문 칼럼은 사이버 폭력의 특징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칼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폭력적 문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의 폭력성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신문 칼럼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348

(가)의 갑은 저작권의 엄격한 보호를 강조하므로 저작권 보호론(카피라이트)의 입장이고, 을은 저작권의 축소와 함께 정보가 공공재임을 강조하므로 저작권 공유론(카피레프트)의 입장이다. 저작권 공유론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보호론에 대해 활발한 정보 생산을 위해 제한 없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②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시할 비판이다. ④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시할 비판이다. ⑤ 저작권 공유론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49

제시문은 뉴 미디어는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방안이 필요함을 다룬다. 이를 해결할 윤리적 방안으로는 미디어 문해력의 함양(ㄴ), 정보 윤리 의식 함양(ㄷ) 등이 있다.

바로잡기 ㄱ, ㄹ. 법과 제도적 방안에 해당한다.

350

㉠에 들어갈 말은 잊힐 권리이다.

351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경우 잊힐 권리를 악용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인 기록을 은폐하려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인한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잊힐 권리의 보장으로 인한 문제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352

제시문은 인공지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한다. 인공지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ㄱ),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부족(ㄷ),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ㄷ) 등이 있다.

바로잡기 ㄴ. 인공지능의 긍정적 측면이다.

353

제시문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 능력의 향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인공지능을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독립된 주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54

세 학생 중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이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A는 인공지능의 책임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공지능을 도덕적 행위 주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ㄱ),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해 생기기도 한다(ㄴ).

바로잡기 ㄷ. 인공지능의 투명성 문제이다. ㄹ.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이다.

355

제시문은 인공지능 윤리의 3대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인공지능 윤리에 따라 인공지능의 혜택은 투자 협력 등과 무관하게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인공지능 윤리의 3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356

발전된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지배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간 본연의 가치와 자율성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357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인공지능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IV 민주시민과 윤리

09 직업 생활과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73쪽 ~ 74쪽

핵심 개념 문제

358 직업 359 정명 360 예 361 자아실현 362 ×
363 ○ 364 × 365 ㉠ 366 ㉡ 367 ㉢ 368 ㉣
369 ㉤ 370 ㉥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1

제시문은 임금에 백성들의 생업을 보살피고 착한 데로 나아가게 한다고 보므로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사회적 역할 분담이 사회 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며(ㄷ), 군주는 백성의 생계유지 기반, 즉 향산(恒産)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맹자는 구성원 간의 역할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없다고 보았다. ㄴ. 맹자는 덕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였다.

372

제시문은 선왕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고 보므로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에 따르면 군주는 구성원들의 덕과 능력을 고려하여 직분을 맡겨야 하며(ㄴ), 구성원들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예에 따라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ㄷ).

바로잡기 ㄱ. 순자는 군주가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ㄷ. 순자는 수양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373

제시문은 신이 각 사람에게 의무를 지정하고 소명을 부여하였다고 보므로 칼뱅의 주장이다. 칼뱅은 직업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칼뱅은 신의 소명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보았다. ③ 칼뱅은 직업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칼뱅은 신에 의한 구원 여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⑤ 중세 그리스도교의 입장이다.

374

제시문은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이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구성원 간 역할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 계층이 서로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플라톤의 입장이다.

375

제시문은 공산주의 사회의 더 높은 단계에서 개인이 기술적 노동 분업에 복종하는 예측적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므로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은 생존을 위한 강제된 노동을 한다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상품 생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 ③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될 때 노동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 국가는 물론 자본가나 노동자와 같은 계급도 소멸된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76

제시문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포부가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고자 한다고 보므로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공직자는 애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해야 하며(ㄷ), 청렴하기 위해 절용을 실천해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정약용은 공직자가 사적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ㄷ. 정약용은 공직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77

갑은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주주들의 돈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프리드먼, 을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 이윤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므로 애로이다. 프리드먼과 애로 모두 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애로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애로는 기업이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프리드먼과 애로 모두 기업 경영의 본질적 목적은 기업 이익의 증진이라고 보았으므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프리드먼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378 ⑤ 379 ③ 380 ① 381 ⑤ 382 ② 383 ⑤

1등급을 향한 서답형 문제

- 384** ㉠ 일반성, ㉡ 특수성 **385** 예시 답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 386** 예시 답안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동료 근로자 및 기업가와 협력해야 한다. **387**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 388** 예시 답안 직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하며,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378

갑은 백성이 살아가는 데 향산(恒産)이 있어야 향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고 보므로 맹자이고, 을은 선왕이 혼란을 싫어하여 예의를 제정하고 이로써 다스린다고 보므로 순자이다. 맹자와 순자는 덕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지위에 차등을 두어야 하며(ㄷ), 구성원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ㄱ)고 보았다. 순자는 예를 기준으로 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맹자는 사회적 분업을 강조하였다.

379

제시문은 종교적 의무로서 직업 노동을 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청교도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고 보므로 베버의 주장이다. 베버는 종교적 의무로서 직업 노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 정당하게 부를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베버의 입장이다.

380

갑은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올바르게 할 때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보므로 공자, 을은 통치자는 지혜, 방위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고 이것이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므로 플라톤이다. 공자는 각자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② 공자의 입장이다. ③, ④ 플라톤의 입장이다. ⑤ 공자와 플라톤의 공통 입장이다.

381

제시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강제된 것이며, 이러한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고 보므로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강제되고 분업화된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적 능력을 쇠퇴시키며(ㄷ), 노동자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ㄷ)고 보았다. 반면에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는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

1등급 정리 노트 마르크스의 직업관

노동과 자아실현	•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함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자본가에 의해 강제된 노동을 함 → 자아실현을 할 수 없음
노동 소외 현상	• 노동 소외 현상: 노동자가 노동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당하여 인간의 본질이 상실되고 비인간화되는 것 • 노동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함
노동 소외 현상의 극복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능동적·주체적 직업생활을 해야 함

382

제시문은 청렴이 목민관 본연의 의무라고 본 점,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본 점을 통해 정약용의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정약용의 입장이다.

383

갑은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직 기업의 이윤 극대화뿐이라고 보므로 프리드먼, 을은 기업의 윤리성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더 향상된다고 보므로 애로이다. 프리드먼의 입장에서는 애로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대상은 주주로 한정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프리드먼은 기업이 합법적인 이윤 추구라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② 애로는 기업의 이윤 추구하고 공동선 실현이 양립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③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윤 추구보다 공동선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④ 프리드먼은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84

㉠에 들어갈 말은 일반성, ㉡에 들어갈 말은 특수성이다.

385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채점 기준	수준
일반적 직업 윤리의 예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일반적 직업 윤리의 예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386

근로자는 자신이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며, 동료 근로자 및 기업가와 협력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근로자 윤리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근로자 윤리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387

㉠의 특징은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이다.

388

직업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하며, 사회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전문직 윤리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전문직 윤리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직종 1등급 문제

• 77쪽

389 ③ 390 ⑤ 391 ① 392 ④

389 직업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마르크스의 주장 이해

자본주의 체제를 뜻한다.
소수가 사회의 생산 수단을 독점하는 곳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자는 여분의 노동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 수단의 소유자를 위해 비자발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비자발적 노동을 해야 해서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고 보므로 마르크스이다.

제시문은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노동 그 자체를 욕구하게 될 때, 즉 자발적 노동이 이루어질 때 실현되며(두 번째 입장), 이러한 이상적인 삶은 계급이 소멸된 사회,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 가능하다(세 번째 입장)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마르크스는 노동의 본질적 가치는 생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아실현에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술적 분업이 확대될수록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예측이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선택지 더 보기

다섯 번째 입장.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에서 자아실현 그 자체로서의 노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여섯 번째 입장. 이상 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사이의 차별과 대립이 사라진다. (○)

390 직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맹자와 순자의 주장 비교

갑: 사람의 몸에는 백공(百工)들이 만드는 것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대인(大人)이 할 일이 있고 소인(小人)이 할 일이 있다.
덕에 따른 사회적 역할 분담을 강조하므로 맹자의 주장이다.

예(禮)를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여 사람들이 각자의 덕과 능력에 맞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므로 순자의 주장이다.
을: 군자는 지혜가 있으면 밝게 이치에 통달해 모든 사물을 처리할 줄 알며, 벼슬자리에 등용되면 공손하고 예(禮)를 따른다. 소인은 지혜가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며 사기를 치고, 벼슬자리에 등용되면 각박하고 도만하다.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것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순자는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곧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 ㉡. 맹자와 순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선택지 더 보기

㉠. B: 누구나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가? (×)
㉡. B: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유기적 관계에 있는가? (○)
㉢. C: 직업 활동은 욕망 충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39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프리드먼과 애로의 주장 비교

기업은 오직 주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 책임을 지며, 사회적 이익을 위한 행동은 주체넘은 것이라고 보므로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갑: 기업 경영자들은 오직 기업의 주주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기업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누군가의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며, 정부의 일에 주체넘게 나서는 것이다.
을: 기업은 환경 보호, 사회 복지 공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여 기업의 이윤 추구에 도움을 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므로 애로의 주장이다.

갑은 프리드먼, 을은 애로이다. 프리드먼에 비해 애로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책임이 법률 준수에 한정됨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기업의 책임 대상에 기업 외부인도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Y)와 기업의 공동선 추구가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392 직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칼뱅과 플라톤의 주장 비교

각자 삶 속에서 실행할 의무, 즉 신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말하므로 칼뱅의 주장이다.
갑: 신은 우리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召命)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한다. 신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를 지정해 주었다.
을: 국가는 개인의 영혼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세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 계층에 적합한 덕목을 실천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
국가의 세 계층이 각자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이상 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므로 플라톤의 주장이다.

갑은 칼뱅, 을은 플라톤이다. 칼뱅은 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ㄴ)고 보았다. 플라톤은 국가 구성원들이 직업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칼뱅과 플라톤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ㄴ. 칼뱅은 직업적 성공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지 않았으며, 구원은 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칼뱅이 '아니오'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10 사회 정의와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79쪽 ~ 80쪽

핵심 개념 문제

- 393 원초적 입장 394 최소 국가 395 복합 평등
396 ○ 397 ○ 398 × 399 ㉠ 400 ㉡ 401 ㉢
402 ㉠ 403 ㉠
-
- 404 ④ 405 ① 406 ⑤ 407 ④ 408 ① 409 ①
410 ③

404

(가)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 (나)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강조한다.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운(ㄱ) 한계점을 지닌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생산의 욕 및 경제적 효율성 저하(ㄴ), 재화의 한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려움(ㄷ) 등의 한계점을 지닌다.

바로잡기 ㄴ.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려운 반면, 필요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

405

제시문은 원초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이 최소 극대화의 규칙에 따라 정의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보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타인과의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며(ㄱ), 오직 자기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을 비롯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사실은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는 원초적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을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

406

제시문은 각 개인이 자기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갖는다고 보므로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국가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 등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노직의 입장이다.

407

제시문은 복합 평등이 실현된 사회를 제시하므로 왓치의 주장이다. 왓치는 한 영역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독점하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왓치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설득력 있고 유능한 정치가가 다른 영역이 아닌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왓치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08

제시문은 법이 일반 의지로부터 나온다고 보므로 루소의 주장이다. 루소는 사형이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계약을 이행하는 형벌이므로(ㄱ) 살인자는 시민이라기보다는 사회 계약을 어긴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루소는 계약자의 생명이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고 주장하였다. ㄹ. 루소는 사회 계약에 따라 국가는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409

제시문은 사형이 아니라 종신 노역형이 가장 강한 범죄 억제력을 갖는다고 보므로 베카리아의 주장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화와 범죄 예방에 있으므로(ㄱ)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형이 아니라 오래도록 속죄해야 하는 종신 노역형을 보게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사형권을 갖지 못하므로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행위와 같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베카리아는 사형도 범죄 억제력이 있긴 하지만, 종신 노역형에 비해 그 정도가 낮다고 보았다. ㄹ.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이라고 주장하였다.

410

A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개인의 업적보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어떤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바로잡기 ①, ②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④, 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411 ③ 412 ④ 413 ④ 414 ③ 415 ② 416 ⑤
417 ① 418 ② 419 ⑤ 420 ⑤ 421 ③ 422 ③
423 ④ 424 ②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425 [예시 답안]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내려지는 것이다. **426** [예시 답안] 벤담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와 같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427 [예시 답안]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에게는 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만이 정당한 형벌이며, 그 외의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
428 [예시 답안] 시민들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민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429 [예시 답안] 사형은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만을 주지만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오래도록 주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411

제시문은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세 원리를 제시하므로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분배 정의의 목표를 개인의 기본적 필요 보장이 아닌, 자기 소유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노직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등급 정리 노트 노직의 정의의 원칙

1. 정의의 원칙

최초 취득의 원칙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개인이 자연의 일부에 자신의 노동을 가하여 소유물로 취득했다면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소유 상태는 정당함
양도(이전)의 원칙	• 어떤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그 소유물을 정당하게 양도받은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님 • 교환이나 증여, 상속 등이 속임수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유 상태는 정당함
교정(시정)의 원칙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함

2. 최소 국가에 대한 입장

- 사람들의 소유권을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함
-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재분배를 위한 과세는 정당하지 않음

412

제시문은 정의가 사람들이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크다고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일반적 정의(γ)와 부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부분적 정의는 다시 분배적 정의(λ, ς)와 교정적 정의로 나누었다.

바로잡기 ς.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을 때에는 산술적 비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등급 정리 노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일반적 정의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
부분적 정의 (특수적) 정의	분배적 정의	•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각자의 가치에 따라 권력, 명예, 재화 등을 분배하는 것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
	교정적 정의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준 만큼 보상하는 것

413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갑은 필요, 을은 업적, 병은 절대적 평등을 강조한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필요와 절대적 평등에 따른 분배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바로잡기 ① 병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③ 갑의 입장에 해당한다. ⑤ 을의 입장에 해당한다.

414

갑은 정의의 원칙들이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라고 보므로 왈처이고, 을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된다고 보므로 롤스이다.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반면, 롤스는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왈처는 롤스에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분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바로잡기 ㄱ. 왈처는 돈과 상품은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 교환의 원리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왈처는 한 사회적 영역 안에서의 불평등, 더 나아가 독점은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1등급 정리 노트 왈처가 말하는 다원적 분배 원칙의 사례

적용 영역	분배 기준
안전과 복지	필요
돈과 상품	자유 교환
정치적 권력	선택과 민주주의

415

갑은 공산주의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마르크스이다. 을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와 최소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노직이다. 병은 정의의 원칙으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롤스이다. 노직, 롤스와 달리 마르크스는 국가와 계급 등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γ)고 보았다. 노직은 과거의 상황과 행위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을 창출한다(⊃)는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였다.

바로잡기 ㄴ. 노직과 롤스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ㄷ. 롤스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다. 롤스에 따르면, 자유는 기회, 부와 소득이 아니라 자유의 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416

제시문의 ‘나’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다.

417

제시문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다루고 있으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따를 경우 더 큰 재능의 소유자가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가치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특히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ㄷ.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는 정의 원칙들의 축차적 서열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가 부정의하다고 보지 않았다.

1등급 정리 노트 정의의 원칙 간 축차적 서열

원초적 입장의 개인	• 계약 당사자의 특징: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더 큰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바라지 않음 • 계약 당사자들은 평등한 자유를 희생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음 → 자유의 우선성과 정의의 원칙들 간 축차적 서열이 존재함
정의의 원칙 간 서열	• 1순위: 평등한 자유의 원칙 • 2순위: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 3순위: 차등의 원칙

418

제시문은 사법적 형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즉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행위로서(ㄱ) 범죄에 비례하여 정언 명령으로 주어져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칸트는 범죄자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ㄷ.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19

갑은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복법이라고 보므로 칸트, 을은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라고 보므로 벤담이다. 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담은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 증진으로 보았다(ㄴ). 그래서 범죄자가 위법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얻는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ㄷ)고 주장하였다. 벤담과 칸트 모두 형벌의 집행을 통해 공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ㄹ).

바로잡기 ㄱ. 벤담의 입장에 해당한다.

420

갑은 사형이 계약 위반에 대한 형벌이라고 보므로 루소, 을은 사형은 범죄자가 살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즉 그를 목적으로 대하였기에 가해지는 것이라고 보므로 칸트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에 따라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일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사형의 선고와 집행을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ㄴ). 칸트는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ㄷ), 살인자에게는 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만이 적절한 형벌이 된다고 보았다. 루소와 칸트 모두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ㄹ)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칸트의 입장이다. 루소는 사형이나 추방을 통해 살인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21

갑은 형벌이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보므로 벤담, 을은 사형이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보므로 베카리아이다. 벤담과 베카리아는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 즉 공리의 원리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벤담의 입장이다. ②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④, ⑤ 벤담과 베카리아의 공통 입장이다.

422

제시문의 사상가는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보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형벌만이 공정하다고 보고, 살인에 대한 동등한 형벌은 사형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칸트는 살인자가 사형받을 행위를 의욕했으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②, ⑤ 칸트는 시민의 안전이나 사회의 이익 증진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범죄자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그는 범죄자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423

제시문은 법이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사형이 아닌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므로 베카리아의 주장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공리주의 관점에 근거해 시행되어야 한다(ㄱ)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계약에 근거할 때 개인의 생명은 자연법상 양도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박탈할 사형권을 지니지 않는다(ㄴ)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금지하는 법에 근거해서도 살인하는 형벌은 부당하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ㄷ. 베카리아는 살인자에 대한 종신 노역형을 주장하였으며, 동해 보복의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424

갑은 사회 계약을 근거로 주장하며, 살인자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므로 루소이다. 을은 사형이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라고 보므로 베카리아이다.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 범죄의 예방 등과 같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ㄴ)고 보았다. 그리고 생명권 양도 여부가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ㄷ)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ㄷ. 베카리아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등급 정리 노트 생명권 양도에 대한 루소와 베카리아의 입장

공통점	생명권 양도 여부를 기준으로 사형제의 정당성을 판단함	
차이점	루소	사회 계약에서 생명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국가는 사형권을 가짐
	베카리아	생명권은 양도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게 사형권은 없음

425

갑 사상가는 형벌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고 보므로 칸트이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단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내려지는 것이다.

채점 기준	수준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칸트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26

을 사상가는 형벌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보므로 벤담이다. 벤담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교화와 같은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채점 기준	수준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의 본질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27

타인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에게는 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만이 정당한 형벌이며, 그 외의 형벌은 정당하지 않다.

채점 기준	수준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찬성 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칸트의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찬성 논거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28

시민들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민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루소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 찬성 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루소의 사회 계약론적 관점에서 사형 찬성 논거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29

사형은 한순간의 강렬한 인상만을 주지만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오래도록 주므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범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다.

채점 기준	수준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반대 논거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베카리아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 반대 논거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1등급 문제

85쪽

430 ④ 431 ① 432 ③ 433 ③

430 형벌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칸트와 벤담의 주장 비교

갑: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므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을: 형벌은 더 큰 악을 없애는 한에서 인정되는 필요악이라고 보므로 벤담임을 알 수 있다.
을: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벤담은 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벌의 질과 양은 동해 보복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X)와 형벌이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임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고,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㉞이다.

431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롤스와 노직의 입장 비교

갑: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즉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은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정의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보므로 롤스이다.

을: 정의의 주제는 세 가지이다. 즉,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던 것이 어떻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부정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이다.

정의의 주제를 소유물의 최초 취득, 양도, 교정으로 보므로 노직이다.

값은 롤스이고 음은 노직이다. 롤스와 노직 모두 개인은 사유 재산을 소유할 불가침적 권리를 지니며(ㄱ), 천부적 자산의 편향에 따른 불평등이 정의의 원칙을 준수한 결과라면 정당화될 수 있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롤스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롤스와 노직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32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파악

동등한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받게 되거나,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따라서 공공의 재화를 분배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그것에 기여한 것의 몫과 같은 몫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다. 분배적 정의란 각자의 가치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아리스토텔레스임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와 교섭에 있어 정의란 동등함이며, 부정의란 동등하지 않음이라고 주장하였다(세 번째 입장). 그리고 상호 교섭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를 바로잡을 때, 당사자들을 모두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손해의 차이에만 주목해야 한다(네 번째 입장)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면 산술적 비례에 따라 그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입장.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예와 금전을 분배할 때에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3 사형에 대한 다양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주장 비교

동해 보복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칸트임을 알 수 있다.
 갑: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다.
 살인자에게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시민이 아닌 공공의 적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루소임을 알 수 있다.
 을: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병: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 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크다.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보므로 베카리아임을 알 수 있다.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이다. 루소는 시민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사형을 실행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베카리아는 사형의 실행에 반대하였다.

바로잡기 ① 칸트와 베카리아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② 칸트, 루소, 베카리아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④ 루소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C에 적절하지 않다. 루소는 살인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베카리아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이므로 D에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종신 노역형에 비해 떨어지지만 사형도 범죄 억제력이 있다고 보았다.

11 국가와 시민의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87쪽 ~ 88쪽

핵심 개념 문제

434 무위 435 양심 436 성공 가능성 437 ○ 438 ×
 439 × 440 ㉠ 441 ㉡ 442 ㉢ 443 ㉣ 444 ㉤
 445 ④ 446 ③ 447 ② 448 ③ 449 ⑤ 450 ①
 451 ④

445

제시문은 왕도 정치를 제시하므로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림에 앞서 자신을 수양하여 덕을 갖추어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성들은 그들의 생업이 보장되어야 일정한 도덕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군주는 백성들의 생업을 살펴야 한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맹자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ㄷ. 맹자는 군주의 통치권은 천명(天命)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446

제시문은 모든 공동체 중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하는 공동체가 곧 국가라고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최초로 형성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47

제시문은 인간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을 때, 즉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 보므로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모든 구성원이 자연권 전반을 국가에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국가의 권력은 절대적이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홉스의 입장이다.

448

제시문은 자연 상태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재산 보존을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그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고 보므로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입법권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신락된 권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로크는 국가의 권력이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소유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로크는 국가를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⑤ 로크는 자연 상태에는 권위를 가진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449

제시문은 현자에 대한 존중, 귀하고 값진 것의 존재 등이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보므로 노자의 주장이다. 노자에 따르면 통치자는 무위의 다스림을 행해야 하며(ㄷ), 백성들의 무지와 무욕을 실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ㄹ).

바로잡기 ㄱ. 유교 사상의 입장이다. ㄴ. 노자는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450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ㄱ), 부정의한 법 모두가 아니라 심각하게 정의의 원칙을 위배한 법 또는 정책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ㄴ).

바로잡기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부정의한 정치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451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비폭력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한 수용 등을 통해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함을 드러낸다고 말하므로 싱어의 주장이다. 싱어는 다수의 견해를 진정으로 반영한 법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한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싱어의 입장이다.

실력 기출 문제

● 89쪽 ~ 90쪽

452 ① 453 ④ 454 ③ 455 ⑤ 456 ③ 457 ⑤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458 ㉠ 개인선, ㉡ 공동선 459 **예시 답안**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공동선의 실현에 무관심해져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460 **예시 답안**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61 **예시 답안**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개인의 양심(정의감)을 제시하였다.

462 **예시 답안**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제시하였다.

463 **예시 답안**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제시하였다.

452

제시문은 자기 보호를 필요로 할 때를 제외하고서는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므로 자유주의자인 밀의 주장이다. 밀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밀은 국가가 공동선 증진을 명목으로 사적 영역을 규제하는 것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았다. ㄷ. 밀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453

제시문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국가에서 살아야 하는 동물로 보는 점, 국가를 여러 공동체의 종착역으로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가족 공동체 의식이 전제된 정치적 공동체이며(ㄴ),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ㄹ)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궁극 목적을 최고선의 추구라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으로서의 선과 시민으로서의 선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454

제시문의 갑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하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대 권력을 수립한다고 보므로 홉스, 율은 개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부를 구성하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므로 로크이다. 로크는 입법권을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된 권력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시민은 주권자로서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ㄷ)고 보았다. 홉스, 로크 모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ㄹ) 사회 계약의 산물로 생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한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합체에 개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국가가 탄생한다. 따라서 군주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ㄴ.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는 계약 이전의 상태이므로 정의와 부정의는 물론 개인의 소유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불의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홉스의 주장으로 옳지 않다.

1등급 정리 노트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

홉스	구분	로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 불안과 혼란이 있음	자연 상태	•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자연권을 누릴 수 있음 • 비교적 평화롭지만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분쟁 발생 → 자기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할 수단 필요
• 국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의 산물 • 주권자에게 절대 권력 부여	국가의 성립	•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정한 재판관이자 집행관으로서 국가 형성 • 자신의 권리 일부를 위임함 → 국가가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면 저항권 행사 가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국가의 역할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 보호
국가에 대한 복종	시민의 역할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

455

제시문은 사회 계약을 사회 구성원이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정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루소의 주장이다. 루소는 인간은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또한 법률에 복종하는 국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하며(ㄷ), 국가는 공공의 이익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다.

1등급 정리 노트 루소의 사회 계약론

국가의 성립	• 자연 상태: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리 • 사회 상태로 옮겨가면서 사유 재산 발생, 불평등과 예측의 불행한 상태에 처함 → 극복하기 위해 계약으로 국가 형성 • 개개인이 지닌 모든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국가 성립
일반 의지	• 의미: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넘어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시민의 도덕적 의지(= 주권) •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고 타인에 의해 대표될 수 없음
국가의 역할	• 통치자: 주권자의 대리인 → 통치자의 권력 제한 및 변경 가능 • 국가는 일반 의지를 대행함 → 일반 의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시민의 역할	일반 의지는 각 개인의 공통 의지이기도 하므로 개인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기도 함

456

제시문은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도 불의의 하수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므로 소로의 주장이다. 소로는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의 양심이므로(ㄷ) 개인의 양심이 준법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양심적인 행위라고 보았다(ㄹ).

바로잡기 ㄱ. 롤스의 입장이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불복종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ㄴ. 싱어의 입장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시민 불복종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457

갑은 시민 불복종이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므로 롤스, 을은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결과들을 서로 저울질하며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정치 체제의 효율성 침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보았다. ③ 롤스와 싱어는 모두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존중심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롤스와 싱어는 모두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1등급 정리 노트 롤스의 시민 불복종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 정의의 원칙을 오랫동안 심각하게 위반한 법이나 정책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함 • 단, '차등의 원칙'은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근거 제시가 어렵기 때문
시민 불복종 범위의 한계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한 결과, 즉 정의로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의 범위에 한계를 설정함

458

㉠에 들어갈 말은 개인선, ㉡에 들어갈 말은 공동선이다.

459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다른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공동선의 실현에 무관심해져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개인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60

공동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위축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공동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공동선의 추구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61

갑 사상가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므로 소로이다.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개인의 양심(정의감)을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	수준
소로가 주장한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소로가 주장한 시민 불복종의 근거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62

을 사상가는 시민 불복종이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보므로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을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	수준
롤스가 주장한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롤스가 주장한 시민 불복종의 근거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91쪽

463 ④ 464 ④ 465 ① 466 ①

463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비교

갑: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자기 보존과 평화를 위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

자연 상태에서 갖던 모든 권리를 자기 보존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리바이어던이 탄생한다고 보므로 홉스의 주장이다.

을: 국가는 자기 완결적 조직으로서 최고선을 추구한다. 공동의 선을 나누어 가질 수 없거나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는 자는 국가의 일부가 아니며, 짐승 아니면 신이다.

국가를 최고선을 추구하는 최상의 공동체로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갑은 홉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 국가의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X)와 국가에 대한 의무가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발생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고,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존재하는 자족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㉔이다.

464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로크와 루소의 주장 비교

갑: 각각의 인간들이 자연법 집행권을 포기하고 사회에 양도하여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이다.

재산권 보호, 평화로운 삶의 영위를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므로 로크의 주장이다.

을: 국가가 형성될 때 개인은 자신을 그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한다. 이를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둔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하는 동의를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므로 루소의 주장이다.

갑은 로크, 을은 루소이다. 로크는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ㄴ)고 보았다. 루소는 일반 의지에 따라 공공선이 달성될 때 개인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로크, 루소 모두 '예'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A에 적절하지 않다. ㄷ. 로크가 '아니요'라고 대답할 질문으로 B에 적절하지 않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은 자연법의 부재가 아니라 공동된 자연법을 집행할 공정한 권력의 부재라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A: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가? (X)
- ㄴ. B: 자연 상태에서 분쟁 발생 시 모든 당사자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가? (O)

465 시민 불복종에 대한 관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롤스의 주장 이해

시민 불복종은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도 일어나는 사회에서 발생한다.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있어서만 행해진다.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를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행해진다고 보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제시문은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도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그리고 차등의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위반한 법 또는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두 번째 입장)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롤스는 정의로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이 침해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롤스는 사회 협동체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 불복종의 근거라고 주장하였다.

466 시민 불복종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싱어와 소로의 주장 비교

공리주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이다.

갑: 공리의 관점에서 시민 불복종이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그것이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을: 우리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법이 독단에 치우쳐 있다면 양심에 따라 저항해야 한다.

개인의 정의감이 준법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므로 소로이다.

갑은 싱어, 을은 소로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노력이 실패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지만, 소로는 부정한 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불복종이 정당하다(ㄱ)고 주장하였다. 또한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양심에서 비롯된 시민 불복종도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지만,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의 양심에 따른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수단은 비록 불법적이더라도 정의 실현이라는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소로는 시민 불복종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보았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A: 시민 불복종은 계약론적 관점을 근거로 정당화해야 하는가? (X)
- ㄴ. B: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X)

09 직업 생활과 윤리

467 ② 468 ② 469 ④ 470 ① 471 ③ 472 지혜, 용기, 절제 473 [예시 답안] 플라톤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10 사회 정의와 윤리

474 ⑤ 475 ② 476 ④ 477 ⑤ 478 ② 479 ③ 480 ② 481 ① 482 ③ 483 [예시 답안]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다. 484 [예시 답안]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11 국가와 시민의 윤리

485 ⑤ 486 ④ 487 ② 488 ② 489 ② 490 ⑤ 491 [예시 답안] 맹자에 따르면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줄 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 492 [예시 답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따라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진다. 493 시민 불복종 494 [예시 답안] 공동선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67

제시문은 매뉴팩처 노동자가 부속물로 전락하여 생산적 활동을 한다고 보므로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매뉴팩처는 산업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하였던 제도로, 이러한 공장제 수공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분업화된 노동을 통해서는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ㄱ)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가들을 위한 대행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라져야 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자가 생존을 위한 강제된 노동을 한다고 보았다.

468

제시문은 소명을 말하므로 칼뱅의 주장이다. 칼뱅은 모든 일이 신이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일, 즉 소명이라고 보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ㄱ)고 보았다. 그리고 직업 노동을 통해 부를 얻기도 하지만 노동의 궁극적 목적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ㄷ)이라고 하였다.

[바로잡기] ㄴ. 칼뱅에 따르면 구원은 직업적 성공과는 무관하게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 ㄷ. 칼뱅에 따르면 직업은 신의 부르심, 즉 소명이다.

469

갑은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있어야 일정한 도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므로 맹자, 을은 사람들의 욕망을 모두 충족하기에 물건은 충분치 않기에 예를 제정하고 분별하였다고 보므로 순자이다. 맹자는 사회적 직분 간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ㄱ)고 보았으며, 순자는 사회적 직분을 분별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예를 강조하였다(ㄴ). 그리고 맹자와 순자는 모두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맹자와 순자는 모두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보았다.

470

제시문은 청렴함이 천하의 큰 장사라고 보므로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했지, 공직자가 사유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정약용의 주장이다.

471

제시문은 자유 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프리드먼의 주장이다.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합법적인 기업 경영으로 건전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ㄷ)이며, 사회적 책임의 대상은 주주로 한정된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프리드먼은 기업이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ㄷ. 프리드먼은 기업의 관심 대상은 오직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고 보았다.

472

㉠, ㉡, ㉢ 계층이 갖추어야 할 덕은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이다.

473

제시문은 국가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구성된다고 보므로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각자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채점 기준	수준
플라톤의 직업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플라톤의 직업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74

제시문은 롤스가 말한 정의의 원칙이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이고 비역사적인 상황에서 도출된다(ㄱ). 그리고 정의의 원칙 중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원칙이며(ㄷ), 기회균등의 원칙은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사한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ㄴ).

바로잡기 ㄴ. 롤스는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 자유들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본적 자유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 중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475

제시문은 소유 권리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에 근거하기에 분배적 정의는 역사적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므로 노직의 주장이다. 노직은 지능 지수는 비역사적이고 정형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유 권리의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ㄱ)고 보았다. 또한 노직은 최소 국가를 지향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이 재화를 취득하거나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ㄴ)고 보는 국가관이다.

바로잡기 ㄴ. 노직은 소유물 취득의 정당성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ㄹ. 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 즉 양도(이전)에 의해 취득한 소유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476

제시문은 정의의 원칙들이 다원적이라고 보므로 왈처의 주장이다. 다원적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 왈처는 정의의 원칙들의 형식은 그 자체로 다원주의적이며(ㄴ),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인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ㄹ)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롤스의 입장이다. ㄴ. 왈처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77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에 대해 갑은 찬성하는 입장, 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갑과 을은 모두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갑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③, ④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478

제시문은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해지는 것이어야 하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라고 보므로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하며(ㄱ), 사형은 범죄자에게 살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목적 그 자체로 존중하는 형벌(ㄴ)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칸트는 형벌이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형벌의 목적은 사적인 보복 실현이 아니라 공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주장하였다.

479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루소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베카리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⑤ 루소는 사회 계약의 원리, 베카리아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480

제시문은 사형의 짧은 순간을 목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속죄해야 하는 종신 노역형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는다고 보므로 베카리아의 주장이다. 베카리아는功利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ㄱ)이라고 보았으며, 범죄 억지력이 있는 동시에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형벌이 정당하다(ㄴ)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베카리아는 사형 제도에 반대하였다. ㄴ. 베카리아에 따르면 개인의 생명권은 자연법상 양도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사형권을 갖지 않는다. 즉,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481

갑은 범죄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의욕하였기에 형벌을 받는다고 보므로 칸트, 을은 형벌 자체는 악이지만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므로 벤담이다.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ㄱ)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ㄴ)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벤담은 형벌이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할 수 있어서 허용되더라도 형벌 그 자체는 악이라고 보았다. ㄹ. 칸트만의 입장이다.

482

제시문은 사회 계약이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사형에 처할 만큼의 중죄를 범한 사람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사회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루소의 주장이다. 루소는 사회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 양도할 수 있다(ㄴ)고 보았으며,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행되는 형벌(ㄴ)이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ㄴ. 형법에 관한 칸트의 입장에 가깝다. 루소는 살인자는 사형 또는 추방을 통해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살인자를 국가의 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483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어렵다.

채점 기준	수준
업적에 따른 분배의 단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업적에 따른 분배의 단점에 대해 서술했으나 미흡한 경우	하

484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85

제시문은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도출할 수 있으며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고 보므로 매킨타이어의 주장이다.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원이며(ㄷ),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유된 핵심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공동체주의자인 매킨타이어는 개인선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할 것이다. 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486

제시문은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하여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므로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시민이 주권자로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지닌다(ㄴ)다고 보았다. 그리고 입법부는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신탁된 권력에 불과하므로 시민은 입법부의 신탁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ㄱ) 위반한 경우 주권자로서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ㄹ)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ㄷ. 로크는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487

제시문은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보므로 홉스의 주장이다. 홉스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홉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488

갑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가 가장 가볍다고 보므로 맹자, 을은 겹애를 주장하므로 목자이다. 맹자에 따르면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보장되어야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으므로 군주는 백성의 향산을 보장함으로써 도덕적 일탈을 막아야 한다(ㄱ). 목자는 군주가 하늘의 뜻에 따라 겹애를 실천해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목자는 침략과 정복 전쟁에 반대하였다. ㄹ. 맹자는 군주가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89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법의 경계선 밖에서 행해지는 양심적인 행위(ㄱ)라고 보았다. 그리고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다른 정당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ㄹ)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불복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을 위반하면 반역죄가 될 경우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로 교통법과 같은 정의로운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다.

바로잡기 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한 사회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490

제시문은 불복종하는 결정이 다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거나, 다수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심각하게 그릇될 경우 불법적 수단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싱어의 주장이다. 싱어는 다수 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도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한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싱어의 입장이다.

491

갑 사상가는 백성이 일정한 생업을 가져야 도덕적 마음을 잃지 않게 된다고 보므로 맹자이다. 맹자에 따르면, 백성을 바르고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 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된다.

채점 기준	수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맹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맹자의 입장을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92

을 사상가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 라고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따라 성립된 국가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진다.

채점 기준	수준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국가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493

㉠에 들어갈 말은 시민 불복종이다.

494

공동선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을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시민 불복종의 일반적인 정당화 조건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V 문화와 경제생활의 윤리

12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99쪽 ~ 100쪽

핵심 개념 문제

- 495 예술 496 예술 지상주의(심미주의) 497 상징
498 문화 산업 499 ○ 500 ○ 501 × 502 ×
503 ○ 504 비판적 수용 505 제도적 장치 마련
506 윤리적 규제
507 ① 508 ① 509 ③ 510 ④ 511 ② 512 ④
513 ②

507

제시문의 ㉠은 미적 가치를 중시하므로 예술, ㉡은 올바른, 선 등을 중시하므로 도덕의 영역이다.

508

제시문은 예술에 대한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시와 악은 인간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두 번째 입장) 군자가 되려면 시와 악을 익혀야 한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공자에 따르면, 시와 악은 도덕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네 번째 입장. 공자는 시와 악의 도덕적 가치를 더 중시하였다.

509

제시문은 심미주의를 제시한 스펡건의 주장이다. 심미주의는 윤리적 가치로 예술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거부한다. 그리고 예술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예술이 도덕성 향상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볼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심미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510

제시문은 예술을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에게 전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므로 톨스토이의 주장이다. 톨스토이는 예술이 인간의 공감 능력을 통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ㄴ)고 보았다. 그리고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예술가의 창작물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ㄱ), 예술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톨스토이는 예술이 상업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511

제시된 그림의 교사는 도덕주의의 특징을 묻는다. 도덕주의는 윤리적 가치가 미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며(갑), 예술과 같은 인간의 행위는 윤리적 규범을 통해 규제될 수 있다(병)고 본다.

바로잡기 을, 정. 도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512

제시문의 A는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는 대중의 관심을 얻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폭력적 내용이나 성 상품화를 조장하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바로잡기 ㉠, ㉡, ㉢, ㉤ 대중문화의 특징에 해당한다.

513

갑은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을은 대중문화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갑은 대중문화의 상업화로 인해 대중문화가 성을 상품으로 삼는 등 이윤을 얻기 위해 선정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갑은 대중문화가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해 요소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대중문화 규제로 인해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대중의 즐길 권리 방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대중문화 규제가 예술의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과 을 모두 대중문화의 자율적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력 기출 문제

● 101쪽 ~ 102쪽

- 514 ② 515 ⑤ 516 ④ 517 ④ 518 ⑤ 519 ①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520 도덕주의 521 **예시 답안** 도덕주의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522 **예시 답안** 도덕주의는 예술의 가치를 도덕의 영역 안에서만 평가함으로써 예술의 미적 가치를 경시하거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523 **예시 답안** 대중문화는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524 **예시 답안** 대중문화의 상업화로 성적 표현과 폭력적 장면의 수위가 높아지면 아동,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514

갑은 와일드, 을은 플라톤이다. 와일드는 심미주의의 입장에서 예술이 도덕적 평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다(ㄱ)고 강조하

였다. 플라톤은 아름다움과 도덕적 선은 다르지 않으므로 서로 분리시키지 않아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와일드는 사회 문제에 대한 예술가의 참여를 강조하지 않았다. ㄹ. 심미주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도덕성 함양이 예술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1등급 정리 노트 심미주의와 도덕주의

1. 심미주의의 주요 사상가

와일드	• 예술을 드러내고 예술가를 숨기는 것이 예술의 목표이다.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 어떤 예술가에게도 윤리적 동정심은 요구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술가에게 동정심이란 단지 매너리즘일 뿐이다.
스핑크	시가 도덕적이라든가 혹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 각형은 도덕적이고 이등변 삼각형은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

2. 도덕주의의 주요 사상가

플라톤	• 예술의 존재 이유는 선을 권장하고 덕성을 정의하는 데 있다. •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 예술은 선의 권장, 덕성의 장려를 위해 존재함
틀스토이	• 예술 작품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 지식이 진보하여 발전하듯이 예술에 의한 감정의 발달도 행복에 더 필요한 감정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을 추방한다. • 예술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이다. → 예술을 통해 표현한 감정이 타인에게 전달되어 공감을 일으키는 것을 중시함

515

제시문은 음악을 반대하는 이유가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천하의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이익을 주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므로 목자의 주장이다. 목자는 음악이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목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등급 정리 노트 목자의 음악에 대한 견해

음악에 대한 인정	음악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함
음악 금지의 이유	• 음악으로 인한 낭비: 민생에 사용되어야 할 재물이 악기 제조를 위해 낭비되고, 노동력이 연주와 감상을 위해 낭비됨 • 음악 금지의 이유 - 실리적 입장에서 볼 때, 음악은 낭비일 뿐 백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음 - 임금과 귀족들이 어지러운 현실을 잊게 함 - 백성의 고통과 국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함

516

제시문은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의 상징이라고 보므로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서로 다르지만,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나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한다(ㄹ)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과 미적 판단은 자

유를 전제로 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ㄷ) 아름다움은 도덕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칸트는 예술이 주는 심미적 즐거움이 도덕적 가치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517

제시문은 반듯한 음악은 백성을 화합하고 질서 있게 하여 견고한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한다고 보므로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바른 음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인간의 악한 본성이 교화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목자의 주장에 가깝다. ②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품성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 ③ 심미주의에 가깝다. ⑤ 순자는 바른 음악으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518

제시문은 문화 산업이 하자 없는 규격품을 만들 듯 인간을 재생산하려 든다고 보므로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상품화된 문화를 대중이 그대로 수용하고 소비하도록 만들어 대중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아도르노의 입장에 해당한다.

519

신론 칼럼은 대중문화의 역기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보장할 경우 비현실적인 이상을 제시하여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해치고,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적절하다.

520

플라톤은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있어 도덕주의의 입장이다.

521

도덕주의는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덕적 교훈이나 본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예술이 도덕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채점 기준	수준
도덕주의의 특징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도덕주의의 특징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22

도덕주의는 예술의 가치를 도덕의 영역 안에서만 평가함으로써 예술의 미적 가치를 경시하거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채점 기준	수준
도덕주의의 한계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도덕주의의 한계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23

A는 대중문화이다. 대중문화는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채점 기준	수준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24

대중문화의 상업화로 인해 성적 표현과 폭력적 장면의 수위가 높아지면 아동, 청소년 등에게 부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제를 초래한다.

채점 기준	수준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103쪽

525 ⑤ 526 ① 527 ④ 528 ④

525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와일드와 톨스토이의 주장 비교

예술이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보므로 와일드의 주장이다.
 갑: 예술은 예술 안에서 그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예술의 눈으로 볼 때, 자연에는 어떤 법칙도 없다.
 을: 미각의 만족감이 결코 음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듯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는 데 있다.
 예술의 가치를 인류 최고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므로 톨스토이의 주장이다.

갑은 와일드, 을은 톨스토이이다. 톨스토이는 도덕주의 입장에서 예술과 도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ㄷ), 예술 작품의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예술가는 감정을 전달하여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ㄹ)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와일드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와일드는 예술로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톨스토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톨스토이도 예술로 미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526 대중문화의 규제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대중문화의 규제에 대한 주장 비교

갑: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정신적 위안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자율성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을: 대중문화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화된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자율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근거로 대중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므로 대중문화의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근거로 대중문화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므로 대중문화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갑은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근거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 을은 대중문화의 역기능을 근거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갑에 비해 을은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를 강조하는 정도(Y)와 대중문화가 지닌 가치의 하락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527 음악에 대한 입장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순자와 목자의 주장 비교

갑: 음악이 중정(中正)하고 화평하면 백성들은 화합하며 빗나가지 않게 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중하면 백성들은 질서가 있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을: 일찍이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 여러 악기들을 만들고 이것을 연주했어도 이로써 천하의 이익을 부흥시키고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음악은 낭비일 뿐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목자이다.

갑은 순자, 을은 목자이다. 순자는 음악이 도덕적 삶에 기여한다(ㄱ)고 보았다. 반면, 목자는 음악이 백성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낭비 행위(ㄹ)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와 목자 모두 음악이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ㄴ)고 본 점은 공통적이다.

바로잡기 ㄷ. 순자만의 입장이므로 A에 적절하다. 순자는 음악을 통해 악한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528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관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플라톤의 주장 파악

좋은 음악은 백성들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보므로 순자이다.
 예술 작품들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은 마치 건강한 곳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수호자들의 눈과 귀에 퍼질 것이며,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이성을 닮고 그것과 친밀해지며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 줄 것이다.
 예술 작품이 인간의 도덕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주장이다.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도덕주의 입장에서 윤리적 가치와 미적 가치에는 우열이 존재하며(두 번째 입장), 예술 작품이 윤리적 가치를 지향할 때 의미가 있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그리고 예술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국가가 검열해야 한다(네 번째 입장)고 보았다. 즉, 예술 작품이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 국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플라톤은 예술이 윤리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므로 미를 추구하는 것과 선을 추구하는 것은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본 기출 문제

● 105쪽 ~ 106쪽

핵심 개념 문제

- 529 의식주 530 유행 531 음식 532 유한 계급
533 ㉠ 534 ㉡ 535 ㉢ 536 ㉣ 537 ㉤ 538 ×
539 ㉥ 540 ㉦ 541 ㉧
542 ㉨ 543 ㉩ 544 ㉪ 545 ㉫ 546 ㉬ 547 ㉭

542

제시문은 의복의 일반적 기능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복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인격 수양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바로잡기 ㉡, ㉢, ㉣, ㉤ 의복의 윤리적 의미에 해당한다.

543

가상 편지는 음식 섭취와 쾌락의 관계에 대해 다루며,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한 음식에 길들여질 때 건강하다고 본다.

바로잡기 ㉡, ㉢, ㉣, ㉤ 가상 편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544

주거 불평등은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제한된 주택 공급 등으로 발생하는 주거와 관련된 윤리 문제이다.

바로잡기 ㉠, ㉢, ㉣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관련한 문제이다. ㉡ 주거 밀집으로 인한 문제이다.

545

제시문은 거주가 일시적 체류와는 반대의 뜻을 가지며, 인간은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참된 본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므로 볼노브의 주장이다. 볼노브는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거주 공간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집은 개인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집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 볼노브는 집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간이라고 보았다.

546

(㉠)는 과시 소비, (㉡)는 기호 소비이다.

547

A는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바로잡기 ㉠, ㉡, ㉢, ㉤ 윤리적 소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 107쪽 ~ 108쪽

- 548 ㉠ 549 ㉡ 550 ㉢ 551 ㉣ 552 ㉤ 553 ㉥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554 A - 로컬푸드 운동, B - 슬로푸드 운동 555 **예시 답안** 음식 윤리에서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는 로컬푸드 운동 외에도 육식 중심의 식단 개선이 있다. 556 사회적 자본

557 **예시 답안** 사회적 자본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548

제시문은 유행이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와 차별화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고 보므로 지멜의 주장이다. 지멜은 유행이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는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즉, 유행은 개인의 차별화 경향을 바탕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방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대한 의존 욕구를 충족시킨다(㉡). 지멜은 이러한 유행을 통해 다른 계층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 지멜은 남과 구분되려는 욕구가 결여되는 경우 유행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549

제시문은 현존재인 인간은 세계 안에서 건축하고 사유하면서 거주한다고 보므로 하이데거의 주장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현존재로서 거주함의 본질을 숙고해야 하며(㉠), 거주함을 배우고 고향을 되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바로잡기 ㉢ 하이데거는 인간이 불변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하이데거는 거주함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해 거주함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50

제시문은 음식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위해 적당량 섭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불교의 음식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불교 윤리에 따르면, 수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잡기 ㉡, ㉢, ㉣, ㉤ 음식에 대한 불교 윤리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551

제시문은 사회의 모든 계층이 통상적인 과시 소비를 그만두지 못한다고 보므로 베블런의 주장이다. 베블런은 과시 소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계층은 없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 ㉡, ㉣, ㉤ 베블런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52

잡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소비를 설명하고, 이른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설명한다. 윤리적 소비는 합리적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효용성을 중시하며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며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정도(Y)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할 것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553

신문 칼럼은 현대인이 자신을 타인과 구별 짓는 기호로서 재화를 소비한다고 보므로 기호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기호 소비는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기호 소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554

A에 들어갈 말은 로컬푸드 운동, B에 들어갈 말은 슬로푸드 운동이다.

555

로컬푸드 운동 외에도 육식 중심의 식단 개선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음식 윤리에서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음식 윤리에서 이산화 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56

㉠에 들어갈 말은 사회적 자본이다.

557

사회적 자본은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정답 1등급 문제

• 109쪽

558 ⑤ 559 ① 560 ④ 561 ④

558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의복 유행의 원인에 대한 입장 비교

의복의 유행은 계층 간 차별과 의존 욕구에 따른 행위라고 본다.
갑: 의복의 유행은 계층 간의 차별과 의존 욕구를 반영한 것이다. 상류층은 하류층과의 차별화로 유행을 채택하고, 하류층은 상류층을 모방하여 유행을 채택함으로써 어떤 가치보다 사회적 의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의복의 유행은 개인의 차별화 욕구를 활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을: 의복의 유행은 개인들의 차별화 욕구를 활용한 기업의 이윤 추구 전략일 뿐이다. 기업은 대량 판매를 위해 빠른 유행을 창조한다. 이때 기업과 소비자는 의복의 생산, 유통, 구매, 사용에서 폐기까지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계층 간 차별 욕구와 의존 욕구에 의해, 이른 개인의 차별화 욕구를 이용한 기업의 전략에 의해 의복이 유행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갑은 의복 유행이 이윤 추구나 물질적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 차별과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③ 이른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차별화 욕구에 따라 의복을 구매한다고 본다. ④ 이른 기업이 의복을 판매할 때 의복의 생산, 유통 등은 물론 환경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즉, 기업의 윤리적 가치를 중시한다.

559 음식 윤리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 이해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잘못된 경우는 주로 지나친 쪽으로만 잘못할 뿐이다. 적당량 이상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은 폭식가이며, 노예적인 사람이다. 절제하는 사람은 쾌락과 관련해서도 중용을 지킨다. 음식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며, 절제하는 사람은 쾌락과 관련해서도 중용을 지킨다고 보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은 감정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조언이 아니다.

560 과시적 소비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베블런의 주장 이해

재화는 서비스든 인간의 생활이든, 과시적 소비가 진화하는 내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작동한다. 소비자의 좋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것을 소비해야만 한다. 명성을 얻고자 한다면 그 소비는 낭비적인 것이어야 한다. 생필품조차 결핍되어 있는 최극빈층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생필품만 소비해서는 가치가 생겨나지 않는다. 과시적 소비에 대한 베블런의 설명이다.

제시문은 베블런의 주장이다. 베블런에 따르면,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계층, 즉 노동하지 않는 유한 계급이 존재하며(두 번째 입장) 이들은 과시적 소비를 하는데, 이는 경제력을 과시하는 행위로 상대의 존경을 받기 위한 행위이다(세 번째 입장). 베블런은 이러한 과시적 소비가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타난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네 번째 입장. 베블런은 명성을 얻기 위한 방법을 과시적 소비와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보았다.

561 음식과 관련된 윤리 문제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음식에 대한 입장 비교

갑: 어떤 돼지가 좋은 삶을 살고 빠른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 돼지가 태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 돼지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돼지를 죽여야 하므로 육식은 정당화됩니다.

└ 육식으로 인해 어떤 돼지가 죽고 새로운 돼지가 태어나는 것은 일이 생긴다고 보아 육식을 정당화한다.

을: 태어나지 않은 돼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좋은 삶을 살았던 돼지라도 도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육식은 인간의 식량 선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은 채식을 통해 돼지의 살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육식을 위해 돼지를 살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육식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채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보아 육식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육식의 정당화에 대해 갑은 긍정적, 을은 부정적이다. 갑은 육식이 동물의 선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ㄱ)고 본다. 을은 이에 반대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고(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육식을 대체할 방법, 즉 채식으로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ㄷ)고 본다.

바로잡기 ㄷ. 을은 태어나지 않은 동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4 다문화 사회의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111쪽 ~ 112쪽

핵심 개념 문제

- 562 다문화 사회 563 이주민 차별 564 종교적 인간
565 대화 566 관용의 역설 567 ○ 568 ○
569 × 570 ○ 571 × 572 문화 상대주의
573 자문화 중심주의 574 문화 상대주의

575 ④ 576 ④ 577 ⑤ 578 ④ 579 ② 580 ②

575

제시문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인 다문화 사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국가 간의 교류와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주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이 늘어나면서 등장하였다(ㄴ). 그리고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문화 선택의 폭이 넓어져 문화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생겨났다(ㄷ).

바로잡기 ㄱ, ㄷ.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배척하고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576

신문 칼럼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보므로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동화주의는 주류 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통합하자는 관점으로 문화 간에 우열이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동화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577

(가)는 샐러드 볼 이론, (나)는 국수 대접 이론이다.

578

A는 이주민 차별이다. 이주민 문화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은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도 수용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이주민 차별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579

제시문은 종교 갈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버리고 관용과 화합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종교 간 대화를 중시하고(ㄱ),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종교 간 이해를 실천해야 한다(ㄷ).

바로잡기 ㄴ.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 갈등의 원인이 된다. ㄷ.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타 종교를 존중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

580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태도에 대해 묻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은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문화 상대주의 자세(㉠)와 보편 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는 배척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바로잡기 ㉠, ㉡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편견을 보이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는 배척되어야 한다.

실력 기출 문제

● 113쪽 ~ 114쪽

581 ③ 582 ⑤ 583 ② 584 ② 585 ④ 586 ②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587 종교 갈등 588 **예시 답안** 종교 갈등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 분열은 물론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589 **예시 답안** 종교적 관용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590 관용의 역설 591 **예시 답안**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지 않고 불관용해야 한다.

581

제시문의 ‘나’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지지하므로 다문화주의의 입장이고, ‘어떤 사람’은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흡수하거나 동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동화주의의 입장이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 대해 이주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함을 간과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동화주의는 이주민 문화보다 주류 문화를 우선한다. ②, ⑤ 다문화주의에서 제기할 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동화주의는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흡수, 동화,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582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은 국수 대접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는 국수 대접 이론이다. 국수 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를 우위에 두고, 비주류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함(ㄹ)으로써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공존을 추구한다(ㄷ).

바로잡기 ㄱ. 샐러드 볼 이론에 해당한다. ㄴ. 동화주의에 해당한다.

583

(가)는 이주민 차별 문제를 다루며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이주민은 이주민 차별 문제로 인해 현재 이주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은 물론 제도적·윤리적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다(ㄷ).

바로잡기 ㄴ. (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A에 적절하지 않다. ㄹ. (가)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B에 적절하지 않다. 이주민 차별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발생한다.

584

제시문은 자연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보므로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이 공존하며(ㄷ),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엘리아데에 따르면, 세계 자체는 성스러움이 아니고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것이다. ㄷ. 종교적 인간에게 종교는 삶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과 거룩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1등급 정리 노트 엘리아데의 주장

인간	• 인간은 종교적 존재 • 모든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지향성을 지님 •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여기든 비종교적이라고 여기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인식과 행동의 밑바탕에는 종교적 의식이 존재함
성현(聖顯)	• 성의 드러남: 존재하는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냄 • 인간이 다른 모든 것은 언제나 성현이 될 수 있음
성과 속	• 성과 속은 분리 또는 단절되어 있지 않음 •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 강조

585

제시문은 종교 간 대화 없이는 종교 간 평화가 불가능하고, 나아

가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다고 보므로 킵의 주장이다. 킵은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의 평화는 필수적이므로(두 번째 입장) 타 종교를 이해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대화 역량을 향상하는 것은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 번째 입장).

바로잡기 네 번째 입장. 킵은 종교 간 대화를 통한 평화를 강조하였지, 단일 종교 설립을 통한 통합을 말하지 않았다.

586

제시문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제한 없는 관용을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즉 포퍼가 말한 관용의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포퍼에 따르면, 무제한적으로 관용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포퍼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포퍼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사상이나 태도에까지 관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587

㉠에 들어갈 말은 종교 갈등이다.

588

종교 갈등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 심각한 사회 분열, 나아가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종교 갈등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종교 갈등의 문제점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89

종교 갈등을 해결하려면 종교적 관용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종교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종교 갈등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90

㉠에 들어갈 말은 관용의 역설이다.

591

관용의 역설을 방지하려면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지 않고 불관용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관용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관용의 역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592 ② 593 ① 594 ④ 595 ④

592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 주장 비교

맥락을 고려하여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므로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다.

갑: 문화는 그 자체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특정 문화의 가치나 관습을 다른 문화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을: 다양한 문화의 흡수 속에서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가 타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이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해야 한다.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므로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이다.

갑은 문화 상대주의, 을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서 그 문화가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바로잡기 ① 자문화 중심주의의 입장에만 해당하므로 C에 적절하다. ③ 이주민 차별의 정당화 입장이다. ④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만 해당하므로 A에 적절하다. ⑤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다.

593 관용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관용의 필요성과 관용의 역할 이해

갑: 관용은 타인의 의견이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는 사회적 통합의 촉진, 불필요한 갈등 감소에 기여한다.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을: 관용이 지나치면, 극단적인 이념까지 허용하여 사회의 안전과 조화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관용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관용의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여 관용의 역할을 제시한다.

갑은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을은 관용이 필요하지만 관용의 역할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다. 갑은 관용이 타 문화 존중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므로(ㄴ) 관용이 사회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ㄱ)고 본다.

바로잡기 ㄷ, ㄹ. 을은 무조건적 관용을 실천하면 관용의 역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594 종교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엘리아데의 주장 이해

우리는 돌 그 자체의 숭배, 혹은 나무 그 자체의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알 수 있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이다. 돌, 나무와 같은 자연물에 성스러움이 드러남, 즉 성현한다고 보므로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은 양립하여(첫 번째 입장)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성스러움이 존재한다(두 번째 입장)고 보았다. 그리고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고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종교적 인간이 존재한다(세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네 번째 입장. 엘리아데는 자연물 그 자체가 성스러움이 아니라 자연물을 통해 성스러움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595 다문화에 대한 윤리적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동화주의와 샐러드 볼 이론의 비교

갑: 이민자들은 주류 문화의 종교, 사회적 질서와 가치, 언어 등에 통합되어야 한다. 주류 문화에 이민자 문화가 흡수될 때 사회 통합이 완성된다. 주류 문화에 이민자 문화가 흡수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동화주의 입장이다.

을: 이주민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샐러드의 과일과 채소처럼 각각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을 위해 이롭다. 이주민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샐러드 볼 이론 입장이다.

(가)의 갑은 동화주의, 을은 샐러드 볼 이론이다. 동화주의는 이주민의 문화와 이주 대상국의 문화 간에는 우열이 있다고 보는 반면, 샐러드 볼 이론은 두 문화가 서로 대등하게 공존해야 한다고 본다(ㄱ). 동화주의는 문화 간의 통합을 통해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ㄴ)고 본다. 샐러드 볼 이론은 이주민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존중한다(ㄷ).

바로잡기 ㄷ. 이주민 문화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해당한다.

단원 마무리 문제

• 116쪽 ~ 119쪽

12 예술과 대중문화의 윤리

596 ② 597 ① 598 ⑤ 599 ④ 600 ④ 601 대중문화

602 **예시 답안** 대중문화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폭력의 정당화,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선정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어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거나 성폭력 문제를 조장할 수 있다.

13 의식주 및 경제생활의 윤리

603 ① 604 ③ 605 ④ 606 ② 607 도덕적 선

608 **예시 답안**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넘어 사회적 약자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609 **예시 답안** 생산자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14 다문화 사회의 윤리

610 ① 611 ④ 612 ③ 613 ④ 614 국수대접 이론

615 **예시 답안** 국수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하고 위계를 둔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만 주류 문화 중심으로 소통이나 화합을 강조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596

제시문은 어떤 예술가도 윤리적 동정심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므로 와일드의 주장이다. 와일드는 심미주의의 입장에서 미적 가치

가 도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으며(ㄱ), 예술은 도덕적 가치와 무관하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ㄷ. 와일드는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예술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였다.

597

제시문은 예술 작품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하며, 아름다운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장인을 찾아야 한다고 보므로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도덕주의의 입장에서 예술 작품이 좋은 성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③, ④, ⑤ 플라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598

제시된 그림의 사상은 선왕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인간의 본성이 교화되고 사회 질서가 바로잡힌다고 보므로 순자이다. 순자는 음악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② 순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자 도덕적 교화의 수단으로 보았다. ③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 ④ 순자는 바르지 못한 음악은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다.

599

제시문은 음악을 규제하는 이유가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천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므로 묵자의 주장이다. 묵자는 음악이 백성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첫 번째 입장) 음악을 규제해야 한다(두 번째 입장)고 보았다. 음악을 통해 백성의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본 것(세 번째 입장)은 순자이다.

바로잡기 네 번째 입장. 묵자는 음악으로 인간의 감정이 즐거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600

제시문은 문화 산업의 총체적 효과가 일종의 반계몽이라고 보는 점, 문화 산업이 개인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발전을 방해한다고 보는 점에서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아도르노는 대중문화가 문화 산업이 되어 자본에 종속되고 있다(ㄷ)고 보았다. 그리고 문화 산업은 예술의 미적 가치보다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며(ㄹ), 대중의 적극적 사유와 주체성을 약화시킨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아도르노는 예술이 자본에 종속되면서 문화 산업이 되었고, 예술이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사용 가치)으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601

㉠에 들어갈 말은 대중문화이다.

602

대중문화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폭력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폭력의 정당화, 모방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 선정적인 내용을 다룰 경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어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거나 성폭력 문제를 조장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대중문화의 윤리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대중문화의 윤리 문제를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603

제시문은 유행이 계층적 차이의 산물이며, 상류 계층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므로 지멜의 주장이다. 지멜은 상류 계층에 동화하려는 욕구, 즉 동조 욕구는 유행을 확산하는 계기이며(두 번째 입장), 유행은 사회 균등화 경향과 차별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현상(첫 번째 입장)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지멜은 다른 계층이 유행을 모방하면 그 유행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지멜은 유행을 사회적 균등화 경향과 개인적 차별화 경향 사이에 타협을 이루려는 삶의 형식으로 보았다.

604

강연자는 인간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집에서 안정을 느낀다고 보므로 볼노브이다. 볼노브는 거주 공간인 집을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린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이라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② 볼노브는 인간이 거주 공간에서 머무르며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④ 볼노브는 거주 공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⑤ 볼노브는 집을 열린 공간이자 닫힌 공간이라고 보았다.

605

그림의 첫 번째, 세 번째 학생이 윤리적 소비를 설명하고 두 번째 학생은 합리적 소비를 설명한다. 따라서 A는 윤리적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 활동이며(ㄱ),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는 소비이다(ㄷ).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할 때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개인의 이익보다 도덕적 선을 기준으로 삼는다(ㄹ).

바로잡기 ㄴ. 합리적 소비에 대한 설명이다.

606

제시문은 사회의 어떤 계층도 과시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므로 베블런의 주장이다. 베블런은 명성을 얻기 위해 과시 소비를 하는 계층이 있으며(ㄱ),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과시 소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비는 사용 가치만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ㄷ).

바로잡기 ㄴ. 과시 소비는 유한 계급뿐만 아니라 하류층에서도 발생한다. ㄹ. 베블런은 자기 보존 본능을 경쟁적인 비교 성향보다 강력한 경제적 동기로 보았다.

607

㉠에 들어갈 말은 도덕적 선이다.

608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넘어 사회적 약자나 환경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소비자가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소비자가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609

생산자는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생산자가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생산자가 도덕적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610

갑은 이주민 문화가 기존 주류 문화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므로 동화주의, 을은 여러 문화가 동등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보므로 샐러드 볼 이론이다. 동화주의의 관점에서는 비주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 즉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잡기 ②, ③, ④ 샐러드 볼 이론에 해당하므로 C에 적절하다. ⑤ 동화주의에 해당하므로 A에 적절하다.

611

갑은 다양한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문화 상대주의, 을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지닌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ㄴ)고 본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며(ㄹ), 그것은 자문화라고 본다.

바로잡기 ㄱ. 문화 상대주의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ㄷ. 자문화 중심주의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C에 적절하지 않다.

612

신문 칼럼은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손이며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므로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 모두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⑤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체험하지만, 비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④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은 자신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613

ㄱ)는 종교 간 화해를 위해 모든 차원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킥의 주장이다. 킥은 자기 종교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윤리적 숙고를 바탕으로 한 종교 간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ㄱ, ㄴ)고 보았다. 그리고 대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ㄹ. 킥은 하나의 종교를 통해 종교 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보지 않았다.

614

㉠에 들어갈 말은 국수 대접 이론이다.

615

국수 대접 이론은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를 구별하고 위계를 둔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만 주류 문화 중심으로 소통이나 화합을 강조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채점 기준	수준
국수 대접 이론에 대한 비판점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국수 대접 이론에 대한 비판점을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하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15 사회 통합의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121쪽 ~ 122쪽

핵심 개념 문제

616 이념 617 세대 618 공자 619 화쟁 620 의사소통의 합리성

621 ○ 622 × 623 ○ 624 ○ 625 × 626 ㉠

627 ㉡ 628 ㉢

629 ㉣ 630 ㉤ 631 ㉥ 632 ㉦ 633 ㉧ 634 ㉨

635 ㉩

629

제시문은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념 갈등에 대한 설명이다. 이념 갈등의 상황에서 특정한 지배적 이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하면 다른 이념을 가진 구성원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이념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로 적절하다.

630

제시된 신문 칼럼은 사회 갈등의 특성과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갈등은 구성원 간 협력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회 통합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갈등의 긍정적 기능을 토대로 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칼럼은 갈등의 순기능도 다룬다. ② 칼럼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협력이 증진되기도 한다고 본다. ③ 칼럼은 갈등을 회피하기보다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⑤ 칼럼은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갈등이 발생한다고 본다.

631

말줄 친 ‘이것’은 지역 갈등이다. 지역 갈등은 서로 다른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공공시설의 입지 선정과 같은 사회적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주로 발생한다.

바로잡기 ① 지역 갈등은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②, 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 갈등의 정치적 해결책 중 하나로,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③ 지역 갈등은 지역 이기주의로 확대될 수 있다.

632

(가)는 군자는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는 공자의 주장이다. 공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동일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공자는 의견의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의견을 도덕 원칙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③ 공자는 모든 사람의 동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633

제시문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밀의 주장이다. 밀은 자유로운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토론 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의견은 물론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가, 다. 밀은 토론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견해를 모두 검토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634

제시문의 갑은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불교의 뜻이라고 보는 점에서 원효이다. 원효는 화쟁 사상에 따라 자기 주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각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문제 상황>의 A, B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 주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의견을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라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잡기 ② 원효는 서로 다른 의견이 더 높은 차원에서 통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④, ⑤ 원효가 주장할 의견이 아니다.

635

제시문은 이상적 대화 상황을 말하므로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첫 번째 의견),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세 번째 의견)고 보았다.

바로잡기 두 번째 의견.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나 욕구, 바람 등을 표현할 수 있다. 네 번째 의견.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담론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636 ⑤ 637 ① 638 ③ 639 ⑤ 640 ④ 641 ②

1등급을 향한 서답형 문제

642 ㉠ 세대 갈등, ㉡ 계층 갈등 **643** [예시 답안] 세대 간의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각 세대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644 [예시 답안] 계층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의 차이가 커지는 것이다.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다.

645 이상적 담화 상황 **646** [예시 답안] 사회적 규범의 맥락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한 태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636

제시문은 지역 갈등에 관한 내용으로, ㉠에는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과정에서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도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바로잡기] ①, ② 지역 갈등을 해결하려면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자기 지역의 이익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지역 간의 경제적·문화적 편차는 지역 갈등의 원인이다. ④ 지역 간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면 공동의 이익 추구를 이룰 수 있다.

637

제시문은 사회 갈등이 드러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 측면을 다룬다. 갈등이 드러남으로써 사회 통합 및 발전이 가능하며(㉠), 조직 내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로잡기] ㉠. 갈등은 개인과 조직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갈등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이다.

638

(가)는 정책에 관한 갈등 사례를 다루고 있다. (나)는 보이는 형태는 다르지만 그 바탕 또는 근원은 동일하다고 보므로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화쟁 사상에 근거하여 서로의 의견이 모두 타당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할 것이다.

[바로잡기] 가, 나. 원효는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추구하라고 조언하지 않을 것이다.

639

제시문은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담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보므로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과정에서 규범의 타당성은 다수의 동의가 아

닌, 규범의 영향을 받는 모두의 합리적 동의를 통해 보장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하버마스의 주장으로 적절하다.

640

그림의 강연자는 군자와 소인의 특징을 비교하여 군자와 같은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공자이다. 공자에 따르면, 군자와 같이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고 존중하여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바로잡기] ① 공자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공자는 도덕 원칙을 지키면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공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타인의 의견을 부정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⑤ 공자에 따르면 소인은 자신과 타인의 의견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41

제시문은 인간이 오류 가능성을 지니지만 실제 판단 상황에서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므로 밀의 주장이다. 밀에 따르면 인간은 오류 가능성을 지니므로 과오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 즉 오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

[바로잡기] 나. 밀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은 인간을 때때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보았다. ㄴ. 밀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밀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확실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642

㉠에 들어갈 말은 세대 갈등, ㉡에 들어갈 말은 계층 갈등이다.

643

세대 간의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각 세대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세대 간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세대 갈등의 해결책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세대 갈등의 해결책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세대 갈등의 해결책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644

계층 갈등은 계층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혜택의 차이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지닌다. 또한 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채점 기준	수준
계층 갈등의 심화 원인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계층 갈등의 심화 원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645

㉠에 들어갈 말은 이상적 담화 상황이다.

646

사회적 규범의 맥락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한 태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이상적 대화 상황의 조건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125쪽

647 ① 648 ③ 649 ① 650 ⑤

647 서양 사상에 나타난 소통과 담론의 윤리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누스바움과 나딩스의 윤리 비교

갑: 감정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지만 협력을 증진하거나 정의를 향한 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감정을 통해 한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도 가능하다. 감정을 통해 사회, 국가를 넘어선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므로 누스바움이다.

을: 배려는 자기 자신의 존거 체제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의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배려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과 그의 객관적 필요와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배려는 배려 받는 사람의 관점, 필요, 기대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나딩스이다.

제시문의 갑은 누스바움, 을은 나딩스이다. 누스바움은 공감을 통한 타인과의 연대를 강조한 것이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바로잡기 ② 누스바움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③, ④ 나딩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⑤ 누스바움과 나딩스의 공통점으로 적절하다.

648 동양 사상에 나타난 소통과 담론의 윤리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원효의 사상 이해

청색과 남색은 색은 다르지만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은 형태가 다르지만 같은 원천이며, 그것은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모두 용납함과 같음을 중생들은 깨달아야 한다. 색과 형태가 다르더라도 그 바탕과 원천이 같다고 보므로 원효의 원용회통 사상을 말하고 있다.

(가)의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불교 종파 간 대립을 극복하고 일심(一心)의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주장들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ㄷ) 서로 조율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ㄴ)이다.

바로잡기 ㄱ, ㄴ. 원효의 원용회통 사상에 따르면, 갈등을 유발하는 의견, 서로 다른 의견을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조율해야 한다.

선택지 더 보기

- ㄱ. 상대방 의견과 나의 의견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 (○)
- ㄴ. 상대방 의견의 우월함을 인정하고 나의 의견을 포기해야 한다. (×)
- ㄷ. 상대방 의견의 편협함을 지적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흡수해야 한다. (×)

649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갈등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파악

- 갑: 갈등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생기게 하여, 상호 협력을 약하게 한다. 갈등 상황에서 각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주장하여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을 멈추게 한다. 그 결과 서로를 적으로 돌리게 하고 불신이 생겨난다.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 을: 갈등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인식하고 신뢰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집단 사이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서로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며, 긍정적 관계로 변모한다. 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갑은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을은 갈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갑에 비해 을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갈등이 집단 간 불신을 가져옴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갈등이 의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정도(Y)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긍정적 변화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650 담론 윤리 이해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하버마스의 입장 이해

의사소통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논증적인 대화인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상적 대화 상황이 실현되어야 한다. 담론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어떤 주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점과 이상적인 대화 상황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제시문은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두 번째 입장). 그리고 담론 과정은 논증과 비판을 거치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세 번째 입장). 또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 참여자는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해 의문이나 비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16 남북한 평화의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127쪽 ~ 128쪽

핵심 개념 문제

- 651 분단 비용 652 통일 편익 653 통일 비용
654 ○ 655 × 656 ○ 657 ㉠ 658 ㉠ 659 ㉠
660 ㉠ 661 ㉠ 662 ㉠
663 ③ 664 ④ 665 ③ 666 ⑤ 667 ⑤ 668 ⑤

663

제시문은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들을 근거로 통일에 반대한다.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이 지지할 논거이다.

664

㉠은 분단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 이후가 아니라 통일 이전에 분단 상황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분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665

갑은 통일로 인해 얻을 평화와 이익을 강조하므로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 을은 통일에 필요한 각종 비용 및 갈등 문제를 강조하므로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은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임을 강조한다.

바로잡기 ①, ②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의 주요 논거이다. ④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의 주요 논거이다. ⑤ 갑과 을은 모두 통일의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666

대북 지원에 대해 갑은 찬성, 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이다.

바로잡기 ①, ②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로 적절하다. ③, ④ 대북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요 논거로 적절하다.

667

제시문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국제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므로(ㄷ) 인권 보장을 위한 타국이나 국제 사회의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다(ㄹ).

바로잡기 ㄱ. 제시문에 따르면 인권은 언제나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ㄴ. 제시문에 따르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간섭은 정당화될 수 있다.

668

칼럼은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마련해야 하므로 상비군의 즉각적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다.

실력 기출 문제

● 129쪽 ~ 130쪽

- 669 ③ 670 ③ 671 ② 672 ④ 673 ⑤ 674 ②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675 ㉠ 분단 비용, ㉠ 통일 비용 **676** **예시 답안** 경제적 분단 비용으로는 남북한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 사용되는 군사비,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 경쟁 비용, 육로 제한에 따른 비효율적 무역 비용 등이 있다. 그리고 비경제적 분단 비용으로는 이산가족의 고통,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전쟁의 위험과 서로에 대한 긴장감, 남북 주민 간의 이념 갈등과 대립 등이 있다.

677 **예시 답안** 경제적 통일 편익으로는 내수 시장 확대, 인구 증가 및 국토 면적 확장, 동북아시아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의 결합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이 있다. 그리고 비경제적 통일 편익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쟁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 신장, 남북한 민주화 촉진 등이 있다.

678 **예시 답안**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북한을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 통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등이 있다.

679 **예시 답안**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한 단계적 교류 협력 진행,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도출,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비한 계획적 준비,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 유도 등이 있다.

669

갑은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당위적인 목표로 보는 입장, 을은 통일을 경제적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을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의 손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① 을의 입장이다. ② 갑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한다. ④ 을은 통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⑤ 을은 통일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해당 주장을 거부할 것이다.

670

제시문은 물자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데에 국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북 지원이 체제나 이념을 떠나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연한 의무라고 본다(네 번째 입장). 또 이러한 대북 지원이 남북한 평화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두 번째 입장)고 주장한다.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세 번째 입장. 대북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제시할 논거이다.

671

㉠은 통일 비용, ㉡은 분단 비용이다.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ㄱ)으로, 분단 비용과 달리 다양한 통일 편익으로 이어진다(ㄷ).

바로잡기 ㄴ. 통일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ㄷ. 통일 비용에 대한 설명이다. 분단 비용은 분단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손해인 소모적 성격의 비용이다.

672

(가)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일괄 타결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자는 입장이고, (나)는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단계적 협력을 이루어 통일을 실현하자는 입장이다. (가)는 통일은 정치적 결단이 전제되어야 한다(ㄱ)고 본다. 반면, (나)는 통일은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ㄴ, ㄷ)고 본다.

바로잡기 ㄷ. (가)만의 주장이다.

673

제시문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 국가는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ㄴ),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계획적인 준비를 하고(ㄷ), 안보 기반의 구축은 물론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ㄷ).

바로잡기 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주변국과도 소통하여 그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674

칼럼은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은 체계적 준비 없이 통일한 탓에 통일 비용 문제와 같은 통일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바로잡기 ① 독일은 체계적 준비 없이 통일하였다. ③ 독일은 통일과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였지만 연방 정부의 노력으로 이를 점차 해소하였다. ④ 독일 통일 초기에는 동독 경제가 서독의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으나 점차 자생력을 갖게 되었다. ⑤ 독일 통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675

㉠에 들어갈 말은 분단 비용, ㉡에 들어갈 말은 통일 편익이다.

676

경제적 분단 비용으로는 남북한 간의 상호 견제를 위해 사용되는 군사비,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 경쟁 비용, 육로 제한에 따른 비효율적 무역 비용 등이 있다. 그리고 비경제적 분단 비용으로는 이산가족의 고통,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전쟁의 위험과 서로에 대한 긴장감, 남북 주민 간의 이념 갈등과 대립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경제적·비경제적 분단 비용의 각각 사례를 두 가지씩 제시한 경우	상
경제적·비경제적 분단 비용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한 경우	중
경제적·비경제적 분단 비용의 사례 중 하나의 사례만 제시한 경우	하

677

경제적 통일 편익으로는 내수 시장 확대, 인구 증가 및 국토 면적 확장, 동북아시아의 교통 및 물류 중심지로 부상,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및 천연자원의 결합에 따른 경제적 시너지 효과 발생 등이 있다. 그리고 비경제적 부분의 통일 편익으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 전쟁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북한 지역 주민의 인권 신장, 남북한 민주화 촉진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경제적·비경제적 통일 편익의 사례를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한 경우	상
경제적·비경제적 통일 편익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한 경우	중
경제적·비경제적 통일 편익의 사례 중 하나의 사례만 제시한 경우	하

678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북한을 객관적이면서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 통일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679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는 안보 기반의 구축과 신뢰 형성,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한 단계적 교류 협력 진행, 통일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 도출, 통합 과정의 어려움에 대비한 계획적 준비,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력 유도 등이 있다.

채점 기준	수준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680 ④ 681 ① 682 ③ 683 ⑤

680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통일에 대한 관점 비교

어떤 사람들은 남북한의 통일이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과 문제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통일의 과정은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을 남한의 국민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통일에 필요한 비용 발생 문제에 주목하므로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제시문은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다룬 글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을 준비하면서 남북한 생활 수준의 격차로 발생할 혼란을 고민해야 하며(ㄴ), 분단 체제를 유지하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ㄹ).

바로잡기 ㄱ, ㄷ. 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의 주요 논거이다.

681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통일 문제의 접근 방법 비교

- (가) 통일 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로 인해 이산가족의 고통이 사라지고, 남북한 주민들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로 인한 민족 정체성이 회복은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 (나) 통일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이주로 인해 실업이 늘어나고,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통일 문제에 대해 갑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을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갑에 비해 을은 상대적으로 통일로 인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통일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Y)와 통일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제적 비용을 강조하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682 통일 문제를 둘러싼 쟁점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 비교

- (가) 남북한 간의 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가치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항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적 일괄 타결을 추진해서라도 신속하게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 남북통일은 정치적 일괄 타결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나) 남북한 간의 통일은 내수 시장을 확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통일 비용이 증가하여 국가 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 등을 진행하며 점진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 통일에 대한 점진적 접근, 통일에 의한 경제적 이익 증대를 주장한다.

갑은 통일에 의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일괄 타결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을은 통일의 경제적 측면과 점진적인 통일 준비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갑에 비해 을은 통일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X)와 통일 과정에서 단계적 준비를 강조하는 정도(Z)는 높고, 통일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하는 정도(Y)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68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과제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과제 비교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기르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를 늘려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립하고 남북한 사회 통합과 평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평화 구축의 장기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칼럼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변국과의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사회·문화적 교류도 늘려 나가야 한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④ 칼럼이 지지할 견해로 적절하다.

17 국제 사회의 윤리

기본 기출 문제

• 133쪽 ~ 134쪽

핵심 개념 문제

- 684 구조적 폭력 685 적극적 평화 686 × 687 ○
 688 ○ 689 × 690 ×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
- 698 ② 699 ② 700 ① 701 ① 702 ③ 703 ②

698

제시문의 ㉠은 모든 국가의 중추적인 국가 이익을 생존이라고 보므로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의 관점이다. 현실주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갈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만,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여 국제 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바로잡기 ①, ③, ④, ⑤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699

제시문의 사상가는 평화를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평화로 구분하는 점, 평화를 혁명적 과제로 보는 점을 통해 갈등임을 알 수 있다. 갈등에 따르면 폭력은 폭력을 낳기 마련이므로 평화는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바로잡기 ①, ④ 갈등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의 제거 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갈등은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⑤ 갈등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확장하여 삶의 질이나 인권까지 고려하는 인간 안보 차원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700

제시문의 사상가는 영구 평화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가 공화 정제 이어야 한다고 보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모든 개별 국가가 평화적 연방으로서의 연맹의 구상 아래에서 자유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현실주의가 긍정할 질문이다. 칸트의 주장은 이상주의에 근거한다. ③ 칸트에 따르면, 현대의 권리는 보편적 우호의 조건으로 서로 교제를 청할 수 있는 방문의 권리이며, 조건부적 권리이다. ④ 칸트는 장래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맺은 평화 조약은 한갓 휴전 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평화 조약이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구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주권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맹인 국제 연맹이 필요한데, 이 연맹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세계 국가의 형성을 의욕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701

제시문의 갑은 국제 정치가 주권 국가 간의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보므로 현실주의 입장의 모겐소, 을은 국제 분쟁이 국가 간 도덕성 확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상주의 입장의 칸트이다. 모겐소는 국제 관계에서의 평화는 세력 균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② 이상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③, ④ 칸트는 국가 간의 대화, 협력, 국제법, 국제 규범 등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현실주의에 관한 설명이다.

702

제시문의 사상가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부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바탕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줄이는 해외 원조를 하는 것을 의무로 보았다(두 번째 입장). 그리고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중요한 도덕적 희생이 없는 한, 자신의 소득 일부를 원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네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싱어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원조를 의무라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롤스의 입장이다.

703

제시문의 사상가는 해외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므로 노직이다. 노직은 해외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에 속하는 행위이므로(ㄱ) 해외 원조를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ㄷ)라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ㄴ. 노직은 자발적으로 행한 원조의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해외 원조를 할 때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싱어의 입장이다.

실력 기출 문제

● 135쪽 ~ 138쪽

704 ③ 705 ⑤ 706 ⑤ 707 ① 708 ① 709 ②
710 ④ 711 ③ 712 ④ 713 ④ 714 ② 715 ②
716 ② 717 ⑤

1등급을 향한 세답형 문제

718 예시 답안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 체제와 통치 정부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719** 공화 정제(공화정) **720 예시 답안**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폭력으로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나 주체가 있다. **721 예시 답안** 사회 제노나 관습, 정치 구조 내에 존재하는 폭력으로 억압과 착취, 소외, 빈곤 등이 대표적이다. **722 예시 답안**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교육 등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기능을 한다.

704

갑은 국제 정치의 본질을 권력 투쟁이라고 보므로 현실주의 입장의 모겐소, 을은 국제 연맹을 통해 국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상주의 입장의 칸트이다. 모겐소는 국가 간에 도덕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국가 외교 정책의 목표도 자국 이익의 극대화(ㄴ)에 있다고 보았다. 칸트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인 환대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건부적 권리이다(ㄷ).

바로잡기 ㄱ. 모겐소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모겐소가 부정할 내용이다.

1등급 정리 노트 국제 관계에 대한 모겐소의 입장

- 국제 정치에서 국익이 가장 중요함
- 개별 국가는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자국의 힘을 키우거나, 타국과의 동맹으로 국가 간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음
- 세력 균형이 없는 곳에서의 국제법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705

제시문의 사상가는 국가 간 제약 없이는 평화 상태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 연맹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평화를 위한 국가 간의 연맹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칸트는 평화 조약만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공화 정체의 도입, 국제적으로는 확대권 보장 등 세계 시민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칸트는 평화 연맹이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세계 국가의 형성을 의욕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정복 전쟁,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방어 전쟁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칸트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합체 등의 다른 행위자가 있다고 보았다.

706

갑은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므로 국가도 이기적이라고 보므로 현실주의, 을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듯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므로 이상주의이다. 각국의 대화와 협력, 도덕성 증진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주의이다.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①, ①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㉔, ㉔ 이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707

제시문의 사상가는 직접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모두 제거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므로 갈통이다. 갈통에 따르면 폭력이 폭력을 낳기 마련이므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수단만이 동원되어야 한다.

바로잡기 ②, ④ 갈통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모두 제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갈통에 따르면,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의 제거는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⑤ 갈통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다고 해서 문화적 폭력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708

제시문의 사상가는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보므로 갈통이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며(첫 번째 입장), 의도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두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갈통은 폭력은 폭력을 낳으므로 폭력을 제거하려면 평화적 수단만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적극적 평화에 대한 설명이다.

709

제시문의 사상가는 영구 평화를 말하고 있으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국제법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야 한다(ㄴ)고 보았다. 그리고 정복 전쟁,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방어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ㄱ. 칸트는 상비군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중여, 매매, 교환 등으로 독립 국가가 다른 국가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710

세계화에 대해 갑은 부정적으로, 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세계화가 영토와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바로잡기 ①, ②, ③, ⑤ 세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진술이다.

711

갑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 을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롤스이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를 의무로 이행해야 한다(ㄴ)고 보았다. 롤스는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로 해외 원조를 이행해야 한다(ㄷ)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ㄱ. 싱어는 개인도 원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ㄴ. 싱어와 롤스가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롤스는 자원이 풍부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있다면 원조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았다.

712

서술형 평가의 갑은 원조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 침해라고 보므로 노직, 을은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나쁜 일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이다. 싱어는 개인에게 큰 희생이 따르지 않는 한 세계 시민의 의무로써 원조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㉔, ㉔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㉔ 싱어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㉔ 싱어와 노직 모두 원조를 위해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713

갑은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보므로 싱어, 을은 최소 국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해서 개인에게 원조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므로 노직이다. 싱어에 비해 노직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윤리적 의무로써 원조를 강조하는 정도(X)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㉔이다.

714

제시문의 사상가는 경제적으로 빈약하더라도 정치 문화, 인권 등이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보며,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므로 롤스이다. 롤스에 따르면,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조가 실시되어야 하며(ㄷ),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부의 평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ㄱ).

바로잡기 ㄴ.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A에 적절하지 않다. ㄹ. 롤스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므로 B에 적절하지 않다. 최대 행복의 원리를 기반으로 원조에 접근하는 사상은 싱어이다.

1등급 정리 노트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의 입장

관점	- 원조는 윤리적 의무 - 국제주의 관점: 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 지향 - 만민에게는 고통받는 사회의 자생력을 키워 그들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
원조의 목적	-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 - 국가 간 빈부 격차 감소,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은 원조의 목적이 아님 -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 없음
원조의 기준	- 차등의 원칙은 국제 사회에 적용하면 안 됨 -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인권 강조, 특정 종교 제공 등은 유용하지만 강제력 사용은 안 됨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 체제를 갖추면 원조를 중단해야 함
제도의 개선	빈곤 문제가 주로 물질적 자원의 부족이 아닌 정치적·사회적 제도의 결함에서 기인한다고 봄 → 원조의 의무를 사회 구조 및 제도 개선에 국한함

715

같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 윌은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므로 롤스이다. 싱어는 자원이 풍부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ㄱ),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롤스는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의 관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리적 근접성을 원조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ㄹ. 롤스가 부정할 내용이다. 롤스는 원조의 목표를 빈곤층의 처지 개선이 아닌,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716

제시문의 사상은 소유 권리에 대해 말하므로 노직이다. 노직에 따르면, 원조는 의무가 아닌 자선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절대 빈곤에 처한 나라에 원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다(세 번째 입장). 그리고 원조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은 강제 노동과 다를 바 없다(두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노직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네 번째 입장. 원조에 관한 싱어의 입장이다.

1등급 정리 노트 해외 원조에 대한 노직의 입장

관점	원조는 개인의 자선 행위
해외 원조	- 자발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돕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 → 자선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음 - 의무로 원조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717

같은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므로 롤스, 윌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이다. 롤스에 비해 싱어는 상대적으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강조하는 정도(X)와 빈곤 정도에 따른 원조를 강조하는 정도(Y)는 높고, 정치 문화 개선의 원조를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1등급 정리 노트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입장

관점	- 원조는 윤리적 의무 - 공리주의 입장: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방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봄
원조의 대상	- 세계 시민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와 무관하게 원조의 의무가 성립함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봄
원조의 기준	-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자원을 제공해야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봄 - 원조의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면 원조를 중단해도 됨 - 절대적 빈곤을 줄이는 일이 상대적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절박하고 우선적인 일임

718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예비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셋째,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정 체제와 통치 정부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채점 기준	수준
예비 조항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예비 조항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예비 조항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719

㉠에 들어갈 말은 공화 정체(공화정)이다.

720

직접적 폭력은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폭력으로,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나 주체가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직접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한 경우	상
직접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하

721

구조적 폭력은 사회 제도나 관습, 정치 구조 내에 존재하는 폭력으로, 억압과 착취, 소외, 빈곤 등이 대표적이다.

채점 기준	수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한 경우	상
구조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하

722

문화적 폭력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교육 등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폭력으로 직접적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 기능을 한다.

채점 기준	수준
문화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한 경우	상
문화적 폭력에 대한 예시와 설명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하

적중 1등급 문제

• 139쪽

723 ② 724 ① 725 ① 726 ②

723 국제 평화 실현에 관한 입장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해

평화 조약에 의해 당장의 전쟁은 종식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종식될 수는 없습니다. 평화 상태는 민족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합니다. 평화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하고자 합니다.

↳ 평화 상태를 위해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칸트의 주장이다.

그림의 강연자는 칸트이다. 칸트는 침략 전쟁과 정복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직 방어 전쟁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①, ④, ⑤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을 통해 상비군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함,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됨,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③ 칸트는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 자유 국가들로 이루어진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724 해외 원조에 대한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갑: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원조의 목적을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게 돕는 것으로 보므로 롤스의 주장이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들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 중요한 희생 없이 절대 빈곤을 방지할 수 있다면 원조를 행해야 한다고 보므로 싱어의 주장이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ㄱ)고 보았다. 싱어와 롤스는 원조를 의무의 차원에서 행해야 한다(ㄴ)고 보았다.

바로잡기 ㄷ. 롤스와 싱어 모두 부정할 내용이다. ㄹ. 싱어는 인류의 부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다.

72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비교하기

1등급 자료 분석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비교

(가) 국제법은 국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며,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의 대화와 국제기구의 노력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 국가를 이성적 존재로 보는 점, 국제 평화를 위해 국가 간 대화와 국제기구의 노력을 강조하는 점을 통해 이상주의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나) 국제법의 지배란 비효율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으며, 국제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와 비슷하다. 국가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 국제법의 지배를 허구로 보는 점, 국가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점을 통해 현실주의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가)는 이상주의, (나)는 현실주의이다. 이상주의에 비해 현실주의는 상대적으로 평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는 정도(X)는 낮고, 국가 간 분쟁 방지를 위해 세력 균형을 강조하는 정도(Y)와 다른 국가를 잠재적인 경쟁 대상으로 보는 정도(Z)는 높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726 국제 평화 실현에 대한 입장 파악하기

1등급 자료 분석 갈통의 사상 이해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는 소극적 평화이다. 우리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 평화에 대한 갈통의 주장이다.

제시문의 사상은 갈통이다.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폭력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ㄷ)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 사라져도 소멸되지 않는다(ㄱ)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갈통은 폭력은 폭력을 초래하므로 평화적 수단을 이용해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갈통은 모든 폭력이 제거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15 사회 통합의 윤리

727 ③ 728 ④ 729 ③ 730 ⑤ 731 ② 732 사회 갈등
733 [예시 답안] 첫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사회적 가치는 유한하기에 분배 과정이 불공정한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6 남북한 평화의 윤리

734 ③ 735 ③ 736 ② 737 통일 비용 738 [예시 답안] 첫째,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며, 다양한 통일 편익으로 이어진다.

17 국제 사회의 윤리

739 ④ 740 ③ 741 ④ 742 ③ 743 ② 744 영구 평화
745 [예시 답안]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제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세계 시민 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727

제시문은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을 비교하는 내용이다. 사회적 지위에 기초한 계층 간에 생기는 갈등은 계층 갈등이다. 지역 갈등은 서로 다른 지역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다.

[바로잡기] ㉠, ㉡ 세대 갈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지역 갈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 세대 갈등과 지역 갈등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728

제시문은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되려면 답론이 필요하며, 답론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므로 하버마스이다. 하버마스는 공정한 답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답론 참여자들은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며, 정당하고 진실한 말로 발언해야 한다고 보았다(ㄱ, ㄴ, ㄷ).

[바로잡기] ㄹ. 하버마스는 답론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에 언제든지 비판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29

칼럼은 공자가 주장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통해 갈등 해결의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화이부동의 자세는 동일성을 강요하거나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바로잡기] ①, ②, ④, ⑤ 공자가 제시한 화이부동에 따른 자세로 적절하다.

730

제시문의 사상가는 생겨남과 사라짐, 움직임과 고요함 등과 같이 서로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다르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의 마음[一心]이라고 보므로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을 바탕으로 일체의 이원적 분별에서 벗어나(두 번째 입장) 서로 다른 의견들을 차별하지 않는 자세를 지녀야 하며(네 번째 입장), 다양한 의견들을 인정하고 조율하여 보다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첫 번째 입장)고 보았다.

[바로잡기] 세 번째 입장. 원효는 서로 다른 의견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731

제시문은 이상적 의사소통에 대해 설명하므로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하버마스는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에 관한 의견도 답론에 부칠 수 있다(ㄱ)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답론으로서 논증적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하였다면 결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ㄷ)고 보았다.

[바로잡기] ㄴ.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았다. ㄹ. 하버마스는 답론 과정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732

㉠에 들어갈 말은 사회 갈등이다.

733

첫째,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차이로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 사회적 가치는 유한하기에 분배 과정이 불공정한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수준
사회 갈등의 원인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사회 갈등의 원인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734

(가)는 통일이 남한에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 반면, (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통일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을 강조하는 정도(X)와 통일이 국제 사회의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Z)는 높고, 통일이 국방비의 증가를 가져옴을 강조하는 정도(Y)는 낮다. 제시된 좌표에서 이를 나타내는 지점은 ㉢이다.

735

제시문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내적 통합의 실현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네 번째 입장),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 교류·협력이 필요하다(세 번째 입장).

[바로잡기] 첫 번째 입장. 제시문은 통일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이질감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입장. 제시문은 이질감의 극복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언급하고 있다.

736

제시문은 일상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 안보가 실현된 상태를 뜻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일상적 평화는 전쟁이나 폭력의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며(㉠), 남북이 대화와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일상적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바로잡기 ㉠. 제시문에 따르면, 물리적 폭력의 제거만으로는 일상적 평화의 실현이 불가능하다. ㉡. 제시문에 따르면, 빈곤과 기아와 같은 인간 안보 문제들은 초국가적인 협력을 통해 대처할 때 해결할 수 있다.

737

㉠에 들어갈 말은 통일 비용이다.

738

첫째,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한시적으로 발생한다. 둘째, 통일 한국의 번영을 위한 투자적인 성격의 비용이며, 다양한 통일 편익으로 이어진다.

채점 기준	수준
통일 비용의 특징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통일 비용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739

제시문의 사상은 도덕을 무조건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법칙들의 총체라고 보므로 칸트이다. 칸트는 각 국가에 공화 정체가 수립되어야 영원한 평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①, ② 칸트는 침략 전쟁, 정복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오직 방어 전쟁만은 도덕적으로 정당화 가능하다고 보았다. ③ 칸트는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을 통해 상비군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칸트는 각 국가의 주권을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740

(가)는 국제 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정의된 권력의 투쟁이라고 보므로 국제 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입장, (나)는 인간이 이성적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보므로 국제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적 입장이다. 현실주의는 국제 사회를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고 보므로 각 국가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스스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상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 동맹이나 비밀 외교 등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바로잡기 가. 현실주의는 세력 균형을 통해 일시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나. 현실주의만의 입장이다.

741

제시문의 사상은 폭력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평화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보므로 갈통이다. 갈통은 폭력은 폭력을

야기하므로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만 달성되어야 하며(㉠),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가. 갈통은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나. 갈통은 진정한 평화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742

제시문의 사상은 원조를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해 부과되는 의무라고 보므로 싱어이다. 싱어는 부유한 나라에도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그들이 큰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원조의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원조의 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원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바로잡기 가.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고통 감소를 위해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롤스의 주장이다. 싱어는 정치적 자율성을 갖춘 국가라고 할지라도 빈곤이 존재한다면 원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743

제시문의 사상은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므로 롤스이다. 롤스는 자원이 빈곤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제도가 질서 정연하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라면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자원 빈곤국 전체가 원조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가). 또한, 빈곤하더라도 질서 정연한 국가는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잡기 나. 롤스에 따르면, 공격적 목적을 가진 사회인 무법 국가는 국제 안전을 위협하므로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롤스는 빈곤의 해소가 아니라,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744

㉠에 들어갈 말은 영구 평화이다.

745

첫째,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둘째,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셋째,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채점 기준	수준
확정 조항을 세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상
확정 조항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중
확정 조항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